

석사학위 논문

濟州道 初等學校 敎員의
餘暇實態와 生活滿足度 分析

지도교수 김 항 원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김 윤 하

2002년 8월 일

濟州道 初等學校 敎員의 餘暇實態와 生活滿足度 分析

지도교수 김 항 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사회교육전공

제출자 김 윤 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윤하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사 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국문초록>

濟州道 初等學校 敎員의餘暇實態와 生活滿足度 分析

김윤하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항 원

본 연구는 제주도 교원들의 여가실태와 생활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교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제주도 초등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 등 385명을 성, 연령, 학력, 결혼여부, 월평균소득의 5개 배경변인 별로 χ^2 검증을 통해 유의도를 밝혔다.

이상의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초등교원들의 여가활동 시간은 평일에는 퇴근 후에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을 휴식정도로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내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독서, 탐방, 창작활동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도 기능직이나 단순노동 종사자가 하는 것과 같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의 부족에 의한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둘째, 주말의 여가시간은 2-4시간 미만이며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주말에는 평일보다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옥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틀에 박힌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 있게 즐기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방학에는 컴퓨터, 외국어 등의 각종 연수활동, 스포츠활동, 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등의 야외활동과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해외여행은 문화체험이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넷째, 여가선용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20~30대 교원은 수업 외 잡무경감을, 50대 이상의 교원은 여가 시설 확충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의 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점차로 설치·운영하고 또 사회시설 이용에 관해 행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경직된 근무시간을 지역사회의 환경에 맞게 자유로운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다섯째, 삶의 전체에서 나의 바람에 대한 성취 정도는 능력이나 기능 및 통제적 발휘가 교직을 수행

하는데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 최선을 다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거나 자신의 기능 및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것,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직업으로 전문직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는 것으로 자위하고 있다.

여섯째, 교내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에 대하여 교내 시설이나 공간의 부족, 그리고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불만족을 느끼는 교원들이 58.7% 이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교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여가시설 활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동료교사와의 유대 강화는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쪽으로 62.6% 이상을 응답하여 인간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직장 내 또는 이웃 사회에서 사람을 사귀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지역은 좁은 곳이라서 이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주도 초등학교교원의 여가는 문화시설 빈약에서 오는 다양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동료교사와의 유대가 잘 이루어져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래 들어서 교원의 사기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감이 있는데 이는 교육을 경제 논리 쪽으로 보는데 있지 않나 본다. 미래의 주인을 바르게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직이 안정되고 사회로부터 우대 받는 정책이 절대적이라 본다.



*본 논문은 2002년 6월 일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여가의 이해	4
2. 여가의 유형	14
3. 생활 만족도	17
III. 연구 방법	22
1. 조사도구	22
2. 표집	23
3. 자료 처리	24
IV. 결과 및 논의	25
1. 여가시간과 여가유형	25
2. 여가 유형과 여가만족도	43
3. 생활만족도	55
V. 결론	77
참고문헌	80
부록(설문지)	83
ABSTRACT	89



표 목 차

표 1. 심리상태 개념의 여가 모형	6
표 2. 학자 및 기관에 따른 여가형태 분류	15
표 3. 교원의 여가형태 분류	17
표 4. 설문지 문항 구성 수	23
표 5. 연령과 성별, 지역에 따른 표본 수	24
표 6. 평일 주요 여가활동시간	25
표 7. 평일 학교에서의 여가활동 시간	26
표 8. 토·일요일의 여가활동 시간	28
표 9. 학기 중 평일의 주요 여가활동	29
표 10. 학기 중 토·일요일의 주요 여가활동	31
표 11. 지난 여름방학 동안의 주요 여가활동	33
표 12. 지난 겨울방학 동안의 주요 여가활동	34
표 13. 다가올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36
표 14. 다가올 겨울방학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37
표 15. 학교 내에서 하고 싶은 여가활동	38
표 16. 교내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유무	40
표 17. 교내에 마련 된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 여부	41
표 18.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에 구비해야 할 여가시설	42
표 19. 여가활동의 목적	44
표 20. 한달 평균 여가활동 비용	45
표 21. 교내에서 이용하는 주요 여가시설	47

표 22. 교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49
표 23. 학교관리자의 여가에 대한 관심도	51
표 24. 여가활동의 장애요인	52
표 25.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한 개선점	54
표 26. 나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한 행정관리자의 인정도	55
표 27.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	57
표 28. 지역사회인의 나에 대한 지명도	59
표 29. 봉급 만족도	60
표 30. 삶의 전체에서 나의 바람에 대한 성취 정도	62
표 31. 관리자의 교직원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도	64
표 32. 학교의 교사 개인의 발전을 위한 혜택 부여 정도	65
표 33.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참가도	66
표 34.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68
표 35. 승진에 대한 기대	69
표 36. 교직원 복지에 대한 학교당국과의 자유로운 상의	71
표 37. 지역사회의 교원을 위한 여가시설 구비 정도	72
표 38. 동료교사와의 친절과 유대 강화	74
표 39.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	7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제도가 교육계에도 이제 곧 도입되면 교원들에게도 여가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사회에서 여가가 생활양식이나 개인의 행복을 가늠하는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가 발전되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의 구조가 변하고 기초적인 衣食住의 문제를 떠나 편리한 생활과 문화생활의 향유로 이어져 즐거움의 추구하고 자아실현이라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과거에는 여가생활이 일부 부유층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국민의 복리 후생적 차원이나 국가의 선진을 나타내기도 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고, 이를 확대하고 있음은 여가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그 본질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우리나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0%가 “여가를 즐기지 못하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¹⁾고 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가 양적인 물질 충족에서 “질적인 향상”에 두고 여가생활이 일반화에 이르게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행복 추구”를 위한 여가생활로 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가는 휴식 및 회복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고뇌를 해소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물론 인성 함양과 자기실현 등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

1) 한국소비자보호원(2002),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가이용 실태 조사” p.5.
http://www.cpb.or.kr/textdata/homepage/200201/1100007/rp_2002011.html02-01-11.

하는 기능을 한다. Kelly가 행복의 증진과 생활만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서의 여가활동이 중요함을 밝히는 견해²⁾를 보면 여가활동이 총체적인 생활의 질을 예시해 주고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면 누구나 여가를 통해 행복과 질 높은 생활(high quality of life)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생활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14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일, 여가생활, 가족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의 네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여가생활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³⁾,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가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이라든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여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스럽다’는 30.2%를, ‘불만족스럽다 와 그저 그렇다’가 69.8%임을 볼 때⁴⁾ 여가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가 생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의 경우는 일반 사회인과는 다르게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공적 업무에 따른 책임과 자율성 제한, 경제논리의 교육정책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오직 2세 교육에 전념해 왔다.

교육이 한 국가나 사회 발전, 민족의 번영에 직결되는 기능을 한다면 이와 같은 중요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교원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창의성과 적극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교원의 여가와 생활만족의 관계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교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여가실태와 생활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것을 교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40~43에서 인용.

3)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한국산업경제연구원. pp.336~338.

4) 한국소비자보호원(2002), 전계 인터넷사이트. p.6.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제주도 초등교원의 여가 활동은 어떠한가?
- 2) 제주도 초등교원의 생활은 만족하고 있는가?

위의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그 대상을 제주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 교원 중에서 일반직 교원은 제외하고 교사, 교감, 교장만으로 제한하였으며, 제주도 지역은 도시 농촌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 간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교원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여가에 대한 개념과 여가유형을 분석하고 여가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 본 다음 생활만족과 관련된 개념과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여가의 이해

1) 여가의 개념

Webster 사전에는 여가(Leisure)를 ‘한가로움’, ‘임무’ 등이나 직업생활로부터 벗어난 ‘한가한 시간’, ‘기분전환’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데⁵⁾ 이 말의 어원을 보면 그리스어의 ‘Scole’와 라틴어 ‘Licere’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는 ‘조용함(quietness)’, ‘평화(peace)’ 등을 의미하나 어떤 경우에는 ‘남는 시간(spare time)’, ‘자유시간(free time)’이란 뜻으로서 이것은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하기도 한다.

또 권이중은 여가를 하루 24시간 중 학업이나 수면, 식사와 같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 활동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으로서 보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⁶⁾ 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의 자발성, 개인의 자아를 진실하게 나타내주는 자기 표현성, 순수한 즐거움 속에서 영위되는 가치 창조적 활동, 그리고 노동과의 밀접한 관계, 더 나아가 인

5) Merriam Webster(1993), *Merriam-Webster*. Massachusetts: merriam-webster Incorporated, p. 665.

6) 권이중(1991), 「사회교육 개론」, 서울: 교육출판사. p.505.

간의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생활양식이라는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가에 대하여 학자들의 관점이 다양한 바 이를 자유시간 개념, 활동 개념, 심리상태 개념으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Kraus는 노동이나 일과 관계되는 일, 개인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개인 시간의 일부로서 임의적인 시간, 혹은 비 의무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견해⁷⁾와, 인간의 행동이 자신의 주체적 행동의사와 관계없이 사회적 제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여가를 각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갖게 되는 자유재량시간⁸⁾,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시간⁹⁾, 개인이 자기 결정적 상황 하에서 재량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¹⁰⁾으로 정의한 것을 보면 여가가 삶의 일부분으로서의 자유시간으로 보는 이론과, 개인이 노동, 가정, 사회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휴식, 기분전환, 지식확대, 자발적 사회참여, 자유로운 창조력 발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행하는 활동 모두로서 여가를 시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시간을 통한 여가활동이라고 하지만 그 목적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가활동이 노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타의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 순수한 여가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여가란 노동과는 무관해야 하지만 자의에 의한 노동시간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노동시간에 여가활동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Dumazedier는 이를 준-여가(semi-leisure)라는 말로 표현했다¹¹⁾.

그는 또한 여가를 활동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여가를 ‘자유시간 내에서 행하는

7) R. Kraus(1971),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N. Y. Apleton Century-Crofts. p.253.

8) C. K. Brightbill(1963), *The Challenge of Leisu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p.4.

9) S. R. Parker(1971),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 : MacGibbon and Kee, p.20.

10) J. F. Murphy(1975), *Recreation and Leisure Service*, Iowa: William C. Brown, pp. 6~15.

11) J. Dumazedier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 Y: The Free Press. pp.6~17.

활동 또는 체험'으로서 가정이나 노동에 대한 임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교양 증진 활동,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오락적 측면으로 보아서 여가의 근본 기능을 휴식, 기분전환, 지식 확대, 자발적 사회활동에의 참여, 개인의 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심리상태 개념으로서의 여가는 그 자체에 목적을 가진 어떤 활동에서 오는 '심적 변화'로서 여가를 시간의 한 구분으로 보지 않고 어떤 활동을 통한 '심적 상태', '마음의 변화'로 보는 견해로서 Neulinger는 여가를 활동보다는 일종의 경험 또는 마음의 상태라고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수행된 활동에 몰입함을 말하며, 기쁨과 만족감을 부여받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재능, 능력, 잠재력 등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이것은 여가가 주어진 시간이나 활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여가를 구성하는 세 일의 요인으로써 '인지된 자유정도'라고 하였으며 <표 1> 과 같은 여가모형으로 나타내었다¹²⁾.

<표1> 심리상태 개념의 여가 모형

자유 ← 인지된 자유정도 → 제약		
동기		동기
내적	내·외적	외적
순수여가	준 여가	노동형 여가
순수노동		준 노동
여가		비 여가
마음의 상태 (심리상태)		

<표1> 에서 순수여가는 높은 인지 자유도와 내적 동기의 특징을 갖는 정신상태를 말하고 준-여가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의 동기유발이 내·외적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고 있던 활동을 중단할 수가 있다. 노동형 여가는 강제성 없이 시작된 활동이지만 활동참여와 만족은 활동자체보다는 건강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외형적 보상으로부터

12) Neulinger, J. (1981), *An Introduction to Leisure*, Boston: Allyn & Bacon. p.13

오는 경우의 정신상태를 말한다. 또 순수노동은 어느 정도의 제약적 정신상태에서 주어진 활동에 임함으로서 얻어지는 만족의 경우이고 준노동은 강제적 활동이나 활동참여 등의 외형적 보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외에 Dahl은 오늘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여가는 단순한 자유시간(free time)이 아니라 자유정신(free spirit), 자유의지(free will)이며 바쁜 일상사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평화상태¹³⁾라고 하여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상과 같이 학자에 따라 여가에 대한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기에는 ‘시간 요소’,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감안하여 여가의 개념을 정의하면 ‘의무적 복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휴식, 기분전환, 자기발전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운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교사들의 여가시간은 학교생활 내·외로 구분해서 수업시간, 업무처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과 퇴근해서 다음날 출근 전까지의 시간 중에서 수면, 출·퇴근 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이 되겠다.

2) 여가의 기능



오늘날의 사회에서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가가 지니는 의미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가가 개인이나 사회에 작용하는 기능이 어떤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는 개인에 따라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낸다. 휴식은 육체적 피로의 회복, 즉 노동생활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마멸을 회복시키며, 기분전환은 보충적 경험이나 일상에서 떠나 인간을 정신적 스트레스나 권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여가는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기계적 일상의 사고나 행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보다 폭 넓고 자유로운 사회활동의 참가나 실무적 기술훈

13) 김광득(1998),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pp.91~92.

런 이상의 도야를 가능케 한다. 이는 여가가 사회나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관심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광득은 여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¹⁴⁾ 첫째, 사회적 학습 기능이다, 이것은 여가도 일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적응하며 공동체 의식이나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어주는데 기여한다. 인간의 유년 시절에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인 각종 놀이를 통해서, 성인이 되어서는 여가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새로운 생활과 규범 또는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둘째, 사회적 통합의 기능으로서 여가는 일과 같이 한 집단이나 사회에 공동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연대감을 증가시켜 사회를 통합하고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준다.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능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교사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오는 피로와 무기력감, 소외감이나 의욕상실이 될 수 있다. 이때 건전한 여가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고 의욕을 자극하며 불안과 실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여가활동은 그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나 사회 공동체에 가치나 의식을 부여하고 공감대 형성과 사회 통합, 그리고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높여주기도 하여 민주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다.

셋째, 문화적 기능이다. 여가는 인간의 문화 발달에 기여하며 인류 문화의 발달은 여가 문화의 발달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해도 된다. 즉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분야에 양적, 질적 향상을 가져왔음에 틀림없었다.

넷째, 재생산의 기능으로서 노동에서 생기는 피로함과 지루함을 해소시켜 노동력을 회복하게 되고 재생산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 기능이다.

여가활동은 청소년 문제나 사회의 각종 일탈행위를 막는 기능도 가진다. 여가시간에 행하여지는 각종 레크리에이션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적, 도덕적인 활동

14) 김광득(1990), 「현대 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pp.73~79.

이기 때문에 건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며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비행과 범죄가 여가시간의 활용을 잘못된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의 선도를 위해서 그들에게도 여가선용은 매우 중요하다.

3)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것은 여가활동의 주체자로서 각 개인의 취향이나 특성, 사회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性

여가활동에 있어서 性적인 차이는 여러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고 연구과제이다. 性적인 차이는 전통적인 性의 역할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와 더 나은 직업을 점유할 수 있었고 여성은 가정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¹⁵⁾.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 노동양상의 차이와 자유 재량적인 시간의 차이에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여가가 남성적인 개념으로 보는데서 여성의 여가는 무시되어 온 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직업 여성의 증가, 가사노동의 감소, 여성의 자아 의식 변화 등으로 여가활동의 공유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性 역할과 性적 가치관에 의하여 여성의 여가에 대한 제약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2) 연령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動적인 여가활동에서 靜적인 활동으로 변하고

15) 강나미·김은실(1988), “도시주부의 여가시간 활용에 관한 연구”, 「살림본 제3집」 서울여자대학교. pp.15~33.

그 활동량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아 왔다. 여가활동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환경적, 정서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며 여가유형에 대한 선호와 참여에 필요한 자원 등에 차이가 있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나미 와 김은실의 연구에서도 30대 이하의 주부집단은 여가 참여도가 높고 교양 목적의 능동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¹⁶⁾을 보더라도 연령은 여가 참여도에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상황, 개인의 성격 특성과 건강상태 등은 여가활동에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교육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여가에 대한 기대와 욕구추구에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들이 일에 몰두하는 만큼 휴가나 여가에 대해서도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White는 말했다¹⁷⁾. 그리고 Neulinger는 개인의 교육수준이 일과 여가활동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과 여가의 두 영역에로의 길이 모두 차단되어져 있다고 하였다¹⁸⁾. 현재의 교육체계가 여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과 자유시간을 통해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더 나은 조건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여가에 대한 큰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장방신¹⁹⁾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계획성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강나미 등²⁰⁾은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양과 건강을 위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교육수준은 여가활동에 대

16) _____(1988), 상계서. p.33~37.

17) T. H. White(1975), *The Relativ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Income as Predictors in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p.7. pp.191~199.

18) J. Neulinger(1981), *op. cit.* p.15~25.

19) 장방신(1984), “서울시 주부의 여가생활 내용”,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0~101.

20) 강나미 • 김은실(1988), 전계 논문. pp.33~37.

한 관심과 활동의 범위를 높이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소득

소득은 여가활동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천이 되고 여가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변수가 된다. Neulinger는 여가참여 연구에서 제시되어진 결과들을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변인으로서 소득의 효과가 과장되거나 간과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는 총소득과 순소득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응답자의 가족 전체의 수입이 아니라 단지 응답자 자신의 소득일 가능성, 부업이나 부차적으로 생기는 소득은 제외될 수 있으며, 자신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정에서 준거로 작용하는 틀이 인식의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²¹⁾. 한편 사회학 분야에서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직업 및 사회계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경향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그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5) 건강

인간에게 있어서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는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는 여가잠재력에 대한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Mancini 등은 건강이 여가활동과 공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²²⁾, Ridick은 건강이 여가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²³⁾고 하여 연령과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 Neulinger, J. (1981), *op. cit.*, pp.26~28.

22) J. A. Mancini & D. K. Orthner(1980), *Situational influence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morale in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p.28, pp.446~471.

23) C. C. Riddick(1986a), *Life satisfaction deterrents of older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Leisure Science, p.7(1),

(6) 직업

일과 여가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에 있어서 여가의 역할을 고용지위와의 관계, 경제기능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그들의 연구 대부분이 노동계급은 여가활동에 있어서 수동적이며 구경거리나 TV 또는 휴식 등을 선호하며 중류계급은 능동적이며 모임이나 회합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인 활동을 선호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그들의 사회계층의 양식에 익숙해질수록 심화되어져 간다²⁴⁾.

또한 Robert는 다양한 직업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첫째, 육체노동자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므로 그들의 여가추구에 있어서 휴식이나 원기회복 등을 선호하게 되며 둘째,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클럽의 가입이나 스포츠장비의 구입 등에 대한 여유가 없으므로 가정 밖에서 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들며, 셋째 상류계층의 가족들은 해외여행의 기회를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혜택으로 인해 고 품질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²⁵⁾. 이와 반대로 직업의 유형과 여가활동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이처럼 직업과 여가의 관계는 상반된 견해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유형과 병행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여가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양자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에 대한 만족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²⁶⁾이나 봉급이나 다른 외적 보수가 일에 대한 내적 동기유발이 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⁷⁾.

24) 장방신(1984), 전계논문. p.101~ 105.

25) 김행규(1998), “초등학교 교원의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에서 재인용.

26) 장방신(1984), 전계 논문. p.103~104.

27) 임변장(1992), 「직장체육활동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p.8~94.

4) 여가 장애요인

여가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여가활동의 선호와 참여사이에 어떤 요인이 존재한다. Crawford 와 Godbey는 이를 여가장애의 개념으로 보고 연구가 이루어져왔다²⁸⁾. 이들은 먼저 여가 선호가 존재하고 다음에 장애가 매개되면 불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장애가 없으면 참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여가장애는 여가선호와 여가참여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선호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는 사회심리적으로 여가활동참여를 제한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개인의 성격이나 상황적 환경에 두고 있다.

여가장애 또는 여가활동에의 비 참여와 참여 중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Romsa 와 Hoffman은 사회계층이 낮고 여가활동집단이 수동적인 집단에게는 흥미 부족이 주된 불참이유이며, 보다 능동적인 집단에게는 시설, 시간, 비용이 장애요인으로 밝히고 있다²⁹⁾. 그리고 Jackson은 활동에 따라 장애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15개의 장애요소와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직업 때문에, 집 근처에서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나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너무 복잡해서, 레크리에이션 기구의 가격 때문에,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고, 활동을 어디서 참여할 수 있을지 몰라서, 레크리에이션 시설 사용을 위한 입장료나 회비 때문에, 가사 때문에, 활동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지 몰라서, 대중속에 참여하기가 부끄럽고, 자동차 기름 비용, 신체적 능력이 없고,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신체장애로 참여할 수 없어서, 미적거리거나 창의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³⁰⁾.

28) D. W. Crawford & G. Godbey(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sciences*. p.9, pp.119~127.

29) G. Romsa & W. Hoffman(1980), An application of nonparticipation data in recreation research : *Testing the opportunity theor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p.12.

30) E. Jackson(1983), *Activity-specific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Leisure Science*. pp.47~67.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우리나라 국민여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것에서는 첫째가 ‘시간부족’(36.9%), ‘참여할 수 있는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을 몰라서’(24.8%), ‘프로그램 빈약(21.5%)’ 등을 들고 있어서³¹⁾ 조사대상자의 58.4%가 여가생활 불만족의 이유가 ‘시간 부족과 프로그램 빈약’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여가활동을 경험해 보면 이런 장애요인은 어느 한 요인만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느끼며, 응답 또한 몇 가지의 명목척도 제시에 의한 선택이므로 여가장애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 장애요인에는 시간, 프로그램, 경제력과 이용능력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 시설, 기회 등의 사회적 요인이 관련되며 조사대상자에 따라 다양하다.

2. 여가의 유형

여가라는 활동이 다양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학자들의 기준 및 방법, 형태가 제각기 다르다. 여가활동의 유형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것들을 살펴보면, McCormick & Tiffin은 여가활동을 조각적, 공작적, 지적, 생활적, 스포츠, 매혹적 스포츠로 분류하였고, Nash는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 창조 및 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 운동, 등산 등에 참여하는 활동, 영화 등이 관람활동, 도박 등의 사회 파괴적 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며, Iso-Ahola는 스포츠 활동, 사회활동, 공작활동 등으로 분류하여 “하는 여가”와 “보는 여가”로 구분하였고³²⁾, Kaplan은 여가활동을 스포츠활동,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예술활동, 대중 문화활동, 여행과 관광활동으로 분류하였다³³⁾.

31) 한국소비자보호원(2002), 전계 사이트. p.6.

32) S. E. Iso-Ahola(1980), *The Social Psychological of leisure and recreation*. Iowa : Wm. C. Brown Co. pp.23-33.

33) 이난숙(2000), “초등학교 교사의 여가활동과 만족도에 관한 조사 분석” 계명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0.

또 Orthner는 여가활동 유형을 개인, 병행, 결합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개인활동은 ‘명상’과 같이 혼자서 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병행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주로 무생물을 이용한 활동으로 TV시청, 음악감상, 요리, 수집 등이 있다. 그리고 결합활동은 주로 스포츠활동과 같이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는 활동³⁴⁾이라고 하였다.

여가의 본질이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보면 노동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적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휴식, 오락, 스포츠 활동, 독서, 음악감상, 문화 예술활동 등의 지식이나 자발적 사회 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개념으로 파악할 때 여기에는 능동적 여가와 수동적 여가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능동적 여가활동이 생활에 훨씬 더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데도 더욱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외 학자나 기관에서는 이처럼 여가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김광득³⁵⁾, 한국소비자보호원³⁶⁾,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부³⁷⁾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표2>와 <표3>과 같다.

<표2> 학자 및 기관에 따른 여가유형

분류자	여가유형	구체적 활동
김광득	1. 스포츠, 건강활동 2. 취미, 교양활동 3. 오락, 사교활동 4. 감상, 관람활동 5. 행락, 관광활동	신체의 발달과 회복, 보양을 위한 것 지식의 확대와 견문을 넓히기 위한 활동 대인사교와 놀이, 게임, 애정을 위한 것 기분전환과 심미성 및 관찰을 위한 것 자연과의 친화와 휴양을 위한 활동

34) 오세복(1999), “대도시 교원의 여가형태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4~32.

35) 김광득(1998), 전게서. pp.212~215.

36) 한국소비자보호원(2002), 전게 사이트. p.3~5.

37) 오세복(1999), 전게서, pp.31~34에서 재인용.

〈표2〉에서 계속

분류자	여가유형	구체적 활동
한국소비자 보호원	1. 문화활동	영화·연극관람, 음악·무용 관람, 박물관·전시회 관람, 스포츠경기 관람
	2. 스포츠활동	시설이용 스포츠활동, 시설 미 이용 스포츠활동
	3. 여행·나들이활동	국내여행, 국외여행, 나들이활동
	4. 오락활동	전통오락, 컴퓨터·인터넷 이용 오락, 경마·경륜, 카지노
	5. 자기개발활동	학원 등 교육시설 이용,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자율적 활동
	6. 일상적 여가활동	독서활동, 비디오 대여·감상, 사회봉사활동, 일간 신문·잡지 구독, TV시청
한국 관광공사	1. 행락·관광활동	산보 및 산책, 등산, 낚시, 야유회 놀이터 및 공원 가기, 자연학습 및 산업시설 구경, 캠핑, 드라이브, 외식, 휴양여행
	2. 사교활동	친지 및 친구방문, 클럽활동(각종수련회),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 계모임 및 동창회, 이성교제, 디스코 클럽 및 카바레
	3. 감상·관람활동	TV시청, 라디오청취, 영화 및 연극관람, 음악회, 작 품 전시회, 동·식물원, 스포츠관전, 경마, 전통가무
	4. 스포츠활동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골프, 사이클링, 헬스클럽, 조경, 수렵, 사격 및 궁도, 격기, 씨름, 승마, 아이스스케이팅, 롤러스 케이팅, 스키, 수영,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5. 취미·교양 활동	정원손질, 가사 돕기, 쇼핑, 문예활동, 수집활동,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서예, 그림 그리기, 사진촬영, 악기연주 및 노래부르기, 꽃꽂이, 수예 및 각종 공 예, 교양강좌, 탈춤 및 전통예술
	6. 놀이 및 오락 활동	장기, 바둑, 화투, 카드, 노름, 전자오락, 윗놀이 등 민속놀이, 기타 놀이활동
	7. 기타	휴식(명상, 낮잠, 낚서, 목욕, 잡담)

〈표3〉 교원의 여가유형

분류자	여가유형	구체적 활동
문화체육부	1. 스포츠 활동	조깅, 체조, 에어로빅, 배드민턴, 축구, 농구, 야구, 사이클, 수영, 탁구, 볼링
	2. 취미 및 교양활동	쇼핑,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집안손질, 서예, 각종연수, 노래부르기
	3. 관람 및 감상활동	연극, 영화관람, 음악감상, 전시회 관람, 스포츠관람, 박물관·박람회 관람
	4. 사교활동	친지방문, 종교 및 사회봉사, 외식, 계모임, 술집 가기, 이성교제
	5. 관광 및 행락 활동	국·내외 여행, 소풍, 드라이브, 야유회, 산책, 유원지, 해수욕
	6. 놀이 및 오락활동	바둑, 카드놀이, 고스톱, 컴퓨터게임, 당구, 만화,
	7. 기타 휴식활동	휴식, 수면, 목욕, 談笑

*문화체육부(1995), 국민 여가활동 참여 실태조사.

3. 생활만족도



1) 생활만족의 개념

사람들은 흔히 생활이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한다. Marcus Aurelius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행복하다”라고 한 것처럼 만족이란 주관적인 감정으로써 개인의 충족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사람들이 갖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 정도라든지 주관적으로 경험한 즐거움과 그렇지 않은 것, 만족과 불만족과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족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반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어지며 이러한 욕구들의 충족을 통해

만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함으로서 행복을 느낀다.

행복에 대하여 철학자들은 “인간행동의 궁극적인 동기이자 최고의 善”이라고 간주해 왔음에도 학자들은 행복이나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³⁸⁾. 근래에 와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론적, 경험적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가연구에서 여가활동과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Riddick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³⁹⁾.

행복에 대하여 Diener는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⁴⁰⁾하고 있는데 첫째는 외적·규범적 정의의 범주로서 미덕이나 신성함과 같은 외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행복은 현대적인 감각에서가 아니고 특정한 가치체계에 의해서 판단되는 바람직한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내적·감정적 정의의 범주로서 유쾌한 감정적 상태를 야기 시키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우세가 행복이라는 것이며 현재의 감정적 상태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감정에 노출되거나 경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는 내적·주관적 정의의 범주로 행복을 개인의 욕구와 목적의 조화로운 만족 또는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 하여 주관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며 전형적으로 개인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정도로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는 생활만족이 감정적 상태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만족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질적인 느낌이나 반응의 결과로서 물질적, 환경적, 심리적 상태가 긍정적으로 욕구의 만족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생활만족이 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 열의,

38) 이종길(1992), 전계 논문. pp.21~28.

39) C. C. Riddick(1986b), *Leisure Satisfaction Precurs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p.18(4).

40) E. Diener(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pp.542~575.

호의 등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태도'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여가와 생활만족에 관계되는 사회요인

(1) 결혼생활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이라고 하면 남·여 한 쌍이 혼인을 하여 한 집에서 동거하는 경우로서 가정생활과 같은 말로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부가 밀접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일을 하지 않을 때로서 부부관계가 확립되는 결혼초기와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 슬하를 떠난 후의 중·장년기이다. 이 때에 장방신은 부부간의 여가활동 요구와 형태가 일치하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부부는 서로 상관 있는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혼 또는 독신자 보다 기혼자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⁴¹⁾.

(2) 사회생활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상호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가의 사회 통합적인 기능으로 보면 사회생활을 통한 여가활동의 참여는 그 형태나 방법에서 다양할 것이다. 김오중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여가활동을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능력에 따라 활동의 참여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⁴²⁾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능력 즉, 의사소통, 비언어 행동, 역할, 정보처리기술 등은 사회적 생존기술이며 이는 만족한 대인 활동유지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과 참여욕구의 통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41) 장방신(1984), 전제 논문. p.100~101.

42) 김오중(1984), “한국레크리에이션의 당면과제와 전망”,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학술대회. 제1회. p.7.

(3) 교직생활

요즘 사회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더구나 교직은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곳이기에 교원의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교원의 임무로 매김 할 때 교사의 자질과 그 영향은 지대하며 교사의 질적 향상은 곧 여가활동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은 직무활동에서 쌓인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작업의욕 고취, 노사관계의 개선, 생산성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체육활동과 같은 여가활동의 참여⁴³⁾라는 보고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교원도 여가활동을 효율적으로 행함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교사 본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기여한다고 하겠다.

(4) 여가활동에 의한 생활만족

생활만족이란 자신의 직업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 정적인 감정상태로서 이는 삶의 의욕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으며 흔히 사회적 행위나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업체 종업원 직무만족 요인을 보면 ① 임금 ② 작업자체 ③ 승진 ④ 감독 ⑤ 작업진단 ⑥ 작업조건 등을 들고 있다⁴⁴⁾.

여가와 생활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이 중길은 여가활동으로서의 체육활동 참여가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장년 층을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의 참여정도가 생활만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제시⁴⁵⁾하고 있는가 하면, 김행규는 여가활

43) 임변장(1992), 전계 논문. pp.88-94.

44) 이삼윤(1994), “중등교원의 여가활동과 근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등의 참여도와 생활만족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배경변인에 따라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다⁴⁵⁾고 하였다.

또 여가활동 참여 수준, 여가만족도, 가정과 건강, 생활만족 등의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Kelly는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밝힌 바 있는데 그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내세운다.

‘활동(Activity)’이란 일상적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과 함께 하는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행동으로서 활동적인 생활과 활동 참가가 생활만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보다 능동적 활동, 즉 스포츠나 취미·교양활동, 문화활동 등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다⁴⁷⁾고 하였고, Palmore는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여가활동 참여빈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비례하고,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⁴⁸⁾고 하였다.

그리고 Riddick은 수입이나 직업, 건강정도의 요인은 생활만족에 대해 여가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가 하면 여가활동은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⁴⁹⁾라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여가활동과 생활만족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여가활동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란다고 하였다. 반면 이 속에는 연령에 따른 여가와 생활주기의 관계가 간과되었다는 것과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형태가 고려되지 않은 점, 여가가 사회탐구로서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영역보다는 소비 만족과 결부되는 일시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이 있다.

45) 이종길(1992), 전계 논문. pp.89~93.

46) 김행규(1998), 전계 논문. p.84.

47) 이종길(1992), 전계 논문. pp.87~89에서 재인용.

48) E. B. Palmore(1968), *The Effects of aging on Activities and Attitudes*, Gerontologist, 8, pp.259~306.

49) C. C. Riddick(1986a), *op. cit.*. pp.47~63.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제주도 초등학교원의 여가실태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도구, 표집,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방법을 설정하고 이용하였다.

1. 조사 도구

제주도 교원의 여가실태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이후원⁵⁰⁾, 윤이중⁵¹⁾, 오세복⁵²⁾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내용 중 여가활동참여유형,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여가실태에 관한 질문으로 여가시간, 여가유형, 둘째는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셋째는 여가의 제반 사항, 넷째는 생활만족도, 다섯째는 특성변인으로 성, 연령, 근무지, 학력, 결혼, 소득 등으로 구성하였다.

예비검사는 두 차례 실시하였다. 1차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사전에 설문지에 관한 교육을 받은 보조 조사원 11명이 설문내용의 적합성,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곤란한 문장 및 내용을 파악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였으며, 2차는 본인 재직교의 교원 35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기입법의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검증 받고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50) 이후원(1993), “여가활동 참여유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5~69.

51) 윤이중(1996),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가가 인지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42~153.

52) 오세복(1999), 전계 논문. pp.177~180.

〈표4〉 설문지 문항 구성 수

구성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여가 유형	여가시간 및 여가유형	1, 2, 3, 4, 5, 6, 7, 8, 9, 10	10
여가 조건	여가시설, 여가 프로그램	11, 12, 13	3
제반 사항	여가의 목적, 비용, 장애요인	14, 15, 16, 17, 18, 19, 20	7
생활 만족도	행정적 지원, 교직에 대한 태도, 동료관계, 보수, 지역사회 관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9
특성 변인	거주지, 성, 연령, 학력, 결혼, 소득,	40, 41, 42, 43, 44, 45	6
계			45

2. 표집

제주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895명⁵³⁾으로서 여자교원은 1237명(65.3%), 남자교원은 658명(34.7%)이다. 이를 지역별로 학교 규모를 36학급이상, 35~12학급, 11학급이하로 분류하여 편의추출법에 의해 415명에게 투입하여 그 중 397부를 회수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5〉와 같다.

53) 제주도교육청(2001), 「제주교육통계연보」, 제주도교육청. pp.102~103.

〈표5〉 연령과 성별, 지역에 따른 표본 수

구분		투입	회수(회수 율)	표본 수(%)
성별	남	171	170	165(42.9)
	여	244	227	220(57.1)
연령별	20대	99	91	84(21.8)
	30대	91	88	86(22.3)
	40대	117	112	111(28.8)
	50대 이상	108	106	104(27.1)
지역별	제주시	193	185	176(45.7)
	서귀포, 남제주	125	118	116(30.1)
	북제주	97	94	93(24.2)
대상자 수(N)		415	397(95.7%)	385(100.0)

3. 자료 처리

설문지 조사는 2002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회수한 397부의 설문지를 점검하여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2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선택된 385부의 자료를 SPSSWIN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그리고 여가유형과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배경 변인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여가활동유형과 이에 관련된 변인에 따른 생활 만족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여가시간, 여가유형과 여가만족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여가시간과 여가유형

제주도 초등교원의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과 여가유형을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학력, 소득 등의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평일 주요 여가활동시간 (단위 : 명, %)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 별	남	0 (0)	2 (1.2)	5 (3.0)	3 (1.8)	154 (93.3)	1 (.6)	165 (100.0)	9.234	4	.056
	여	3 (1.4)	4 (1.8)	2 (.9)	11 (5.0)	192 (87.3)	8 (3.6)	220 (100.0)			
연 령 별	20대				2 (2.4)	81 (96.4)	1 (1.2)	84 (100.0)	16.448	12	.172
	30대	1 (1.1)	4 (4.6)	1 (1.1)	3 (3.4)	74 (86.0)	3 (3.4)	86 (100.0)			
	40대	1 (.9)		3 (2.7)	7 (6.3)	98 (88.2)	2 (1.8)	111 (100.0)			
	50대 이상	1 (.9)	2 (1.8)	3 (2.7)	2 (1.8)	93 (89.4)	3 (2.7)	104 (100.0)			
최 종 학 력	사범, 2년제교대	1 (1.9)	3 (5.7)	1 (1.9)	3 (5.7)	42 (80.7)	2 (3.6)	52 (100.0)	29.762	8	.000
	학사	2 (.7)	3 (1.2)	1 (.4)	5 (1.9)	244 (93.4)	6 (2.3)	261 (100.0)			
	석사이상			5 (6.9)	6 (8.3)	60 (83.3)	1 (1.4)	72 (100.0)			

〈표6〉 계속

〈표6〉에서 계속

변인 \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결혼여부	기혼	3 (1.0)	5 (1.7)	7 (2.4)	10 (3.4)	254 (88.5)	8 (2.7)	287 (100.0)	3.889	4	.421
	미혼		1 (1.0)		4 (4.1)	92 (93.9)	1 (1.0)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1 (.8)	3 (2.4)	6 (4.9)	110 (89.4)	3 (2.4)	123 (100.0)	9.269	8	.320
	250-349만원	3 (2.0)	5 (3.4)	1 (.6)	5 (3.4)	133 (89.3)	2 (1.2)	149 (100.0)			
	350만원 이상			3 (2.7)	3 (2.7)	103 (91.2)	4 (3.5)	113 (100.0)			
전체		3 (.7)	6 (1.5)	7 (1.8)	14 (3.6)	346 (89.8)	9 (2.3)	385 (100.0)			

*항목: ① 출근전 ② 근무전 ③ 중식전후 ④ 근무후 ⑤ 퇴근후 ⑥ 기타

위의 <표6>을 보면, 평일 여가활동 시간에 대해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력별로 p <.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사소지자(93.4%), 석사소지자(83.3%), 사범 및 교육대학 2년제 졸업자 (80.7%)가 퇴근 후에 여가활동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평일의 여가활동은 학사 소지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7〉 평일 학교에서의 여가활동 시간

(단위 : 명, %)

변인 \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106 (64.6)	20 (12.2)	11 (6.7)	2 (1.2)	1 (.6)	25 (15.2)	165 (100.0)	7.819	4	.098
	여	140 (63.9)	45 (20.5)	7 (3.2)	1 (.5)	1 (.4)	26 (11.9)	220 (100.0)			

〈표7〉 계속

<표7> 에서 계속

변인 \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연령별	20대	51 (60.7)	20 (23.8)	3 (3.6)	1 (1.2)		9 (10.7)	84 (100.0)	16.760	12	.159
	30대	61 (71.8)	12 (14.1)	3 (3.5)		1 (1.1)	9 (10.6)	86 (100.0)			
	40대	71 (64.5)	15 (13.6)	3 (2.7)		1 (.9)	21 (19.1)	111 (100.0)			
	50대 이상	63 (60.6)	18 (17.3)	9 (8.7)	2 (1.9)		12 (11.5)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30 (57.7)	13 (25.0)	4 (7.7)	2 (3.8)		3 (5.8)	52 (100.0)	16.691	8	.033
	학사	166 (63.6)	45 (17.3)	12 (4.6)	1 (.4)	1 (.4)	36 (13.8)	261 (100.0)			
	석사이상	50 (70.4)	7 (9.9)	2 (2.8)		1 (1.3)	12 (16.9)	72 (100.0)			
결혼여부	기혼	184 (64.6)	46 (16.1)	15 (5.3)	2 (.6)	2 (.6)	38 (13.3)	287 (100.0)	1.319	4	.858
	미혼	62 (63.3)	19 (19.4)	3 (3.1)	1 (1.0)		13 (13.3)	98 (100.0)			
월평균소득	25만원 미만	80 (65.6)	22 (18.0)	1 (.8)		1 (.8)	19 (15.6)	123 (100.0)	9.430	8	.307
	250-349 만원	97 (65.5)	24 (16.2)	8 (5.4)	2 (1.2)	1 (.6)	17 (11.5)	149 (100.0)			
	350만원 이상	69 (61.1)	19 (16.8)	9 (8.0)	1 (.9)		15 (13.3)	113 (100.0)			
전체		246 (63.8)	65 (18.8)	18 (4.7)	3 (.8)	2 (.5)	51 (13.2)	385 (100.0)			

*항목: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미만 ③ 2-3시간 미만 ④ 3-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⑥ 기타

<표7>에서 보면 “평일의 학교에서의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소득별로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력별로 p <.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범 또는 교대2년 졸업자는 1시간 미만(57.7%), 1-2시간 미만(25.0%), 2-3시간 미만(7.7%)의 순으로, 학사소지자는 1시간 미만(63.6%), 1-2시간 미만(17.3%), 2-3시

간 미만(4.6%)의 순으로 나타났고, 석사이상의 경우는 1시간 미만(70.4%), 1-2시간 미만(9.9%), 2-3시간 미만(2.8%)으로 나타나서 평일에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1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사는 조기출근, 학급경영, 업무처리와 관련한 생활에서 여가의 여유가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표8> 토·일요일의 여가활동 시간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24 (14.5)	61 (37.0)	46 (27.9)	16 (9.7)	14 (8.5)	4 (2.4)	165 (100.0)	7.754	5	.170	
	여	49 (22.4)	69 (31.5)	56 (25.6)	19 (8.7)	25 (11.4)	1 (.5)	219 (100.0)				
연령	20대	3 (3.6)	20 (23.8)	24 (28.6)	16 (19.0)	20 (23.8)	1 (1.2)	84 (100.0)	70.267	15	.000	
	30대	23 (27.1)	27 (31.8)	22 (25.9)	6 (7.1)	7 (8.2)		85 (100.0)				
	40대	32 (28.8)	37 (33.3)	20 (18.0)	10 (9.0)	9 (8.1)	3 (2.7)	111 (100.0)				
	50대 이상	15 (14.4)	46 (44.2)	36 (34.6)	3 (2.9)	3 (2.9)	1 (1.0)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1 (21.6)	13 (25.5)	19 (37.3)	3 (5.9)	5 (9.8)		51 (100.0)	7.372	10	.690	
	학사	47 (18.0)	93 (35.6)	67 (25.7)	24 (9.2)	27 (10.3)	3 (1.1)	261 (100.0)				
	석사이상	15 (20.8)	24 (33.3)	16 (22.2)	8 (11.1)	7 (9.7)	2 (2.8)	72 (100.0)				
결혼여부	기혼	67 (23.3)	108 (37.6)	74 (25.8)	18 (6.3)	16 (5.6)	4 (1.4)	287 (100.0)	49.901	5	.000	
	미혼	6 (6.2)	22 (22.7)	28 (28.9)	17 (17.5)	23 (23.7)	1 (1.0)	97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18 (14.8)	41 (33.6)	30 (24.6)	12 (9.8)	18 (14.8)	3 (2.5)	122 (100.0)	17.812	10	.058	
	250-349 만원	31 (20.8)	48 (32.2)	50 (33.6)	9 (6.0)	9 (6.0)	2 (1.3)	149 (100.0)				
	350만원 이상	24 (21.2)	41 (36.3)	22 (19.5)	14 (12.4)	12 (10.6)		113 (100.0)				
전체		73 (19.0)	130 (33.9)	102 (26.6)	35 (9.1)	39 (10.2)	5 (1.3)	384 (100.0)				

*항목: ① 2시간 미만 ② 2-4시간 미만 ③ 4-6시간 미만 ④ 6-8시간 미만 ⑤ 8시간 이상 ⑥ 기타

<표8>에서 보면 주말의 여가시간에 대해서는 성별, 학력, 소득별로 $p < .05$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 결혼여부별로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인다. 20대는 4-6시간 미만(28.6%), 2-4시간 미만(23.8%), 8시간 이상(23.8%)의 순으로, 30대는 2-4시간 미만(31.3%), 2시간 미만(27.1%), 4-6시간 미만(25.9%)의 순이며, 40대는 2-4시간 미만(33.3%), 2시간 미만(28.8%), 4-6시간 미만(18.09%)이고, 50대 이상은 2-4시간 미만(44.2%), 4-6시간 미만(34.6%), 2시간 미만(14.4%)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여부별로 주말의 여가시간에 있어서도 기혼자는 2-4시간 미만(37.6%), 4-6시간 미만(25.8%), 2시간 미만(23.3%)의 순으로, 미혼자는 4-6시간 미만(28.9%), 8시간 이상(23.7%), 2-4시간 미만(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연령과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20대의 미혼자는 주말에 4-6시간 미만 또는 8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의 교원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았다. 이는 미혼의 경우는 기혼보다 가사나 자녀양육에 따른 시간적 부담이 없고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되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며 기혼자는 주말 여가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적은 것은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과 가사와 관련된 일로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보아진다

<표9> 학기 중 평일의 주요 여가활동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χ^2	df	p
		①	②	④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성별	남	18 (11.0)	5 (3.0)	8 (4.9)	19 (11.6)	8 (4.9)	14 (8.5)	55 (33.5)	18 (11.0)		2 (1.2)	3 (1.8)	5 (3.0)	5 (3.0)	2 (1.2)	2 (1.2)	164 (100.0)	56.675	14	.000	
	여	17 (7.8)	11 (5.0)		39 (17.8)	6 (2.7)	29 (13.2)	69 (31.5)	1 (.5)	2 (.9)	26 (11.9)	5 (2.3)	6 (2.7)	6 (2.7)	1 (.5)	1 (.5)	219 (100.0)				
연령	20대	9 (10.7)	4 (4.8)		12 (14.3)	6 (7.1)	14 (16.7)	26 (31.0)	4 (4.8)		2 (2.4)	2 (2.4)		4 (4.8)	1 (1.2)		84 (100.0)	69.831	42	.004	
	30대	10 (11.8)	7 (8.2)		9 (10.6)	2 (2.4)	7 (8.2)	22 (25.9)	3 (3.5)	1 (1.2)	11 (12.9)	4 (4.7)	5 (5.9)	4 (4.7)			85 (100.0)				
	40대	7 (6.4)	3 (2.7)	3 (2.7)	26 (23.6)	1 (.9)	11 (10.0)	35 (31.8)	3 (2.7)	1 (.9)	8 (7.3)	1 (.9)	5 (4.5)	3 (2.7)	2 (1.8)	1 (.9)	110 (100.0)				
	50대 이상	9 (8.7)	2 (1.9)	5 (4.8)	11 (10.6)	5 (4.8)	11 (10.6)	41 (39.4)	9 (8.7)		7 (6.7)	1 (1.0)	1 (1.0)			2 (1.9)	104 (100.0)				

<표9> 계속

<표9>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④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성별 교대	사범, 2년제교대	4 (7.7)	1 (1.9)	3 (5.8)	9 (17.3)	1 (1.9)	5 (9.6)	15 (28.8)	3 (5.8)		9 (17.3)		2 (3.8)				52 (100.0)	37.759	28	.103	
	학사	27 (10.4)	12 (4.6)	2 (.8)	37 (14.2)	12 (4.6)	26 (10.0)	87 (33.5)	16 (6.2)	2 (.8)	14 (5.4)	7 (2.7)	7 (2.7)	8 (3.1)	1 (.4)	2 (.8)	260 (100.0)				
	석사이상	4 (5.6)	3 (4.2)	3 (4.2)	12 (16.9)	1 (1.4)	12 (16.9)	22 (31.0)			5 (7.0)	1 (1.4)	2 (2.8)	3 (4.2)	2 (2.8)	1 (1.4)	71 (100.0)				
연령 부	기혼	25 (8.7)	9 (3.1)	8 (2.8)	45 (15.7)	8 (2.8)	28 (9.8)	95 (33.2)	14 (4.9)	2 (.7)	27 (9.4)	5 (1.7)	9 (3.1)	6 (2.1)	2 (.7)	3 (1.0)	286 (100.0)	22.733	14	.065	
	미혼	10 (10.3)	7 (7.2)		13 (13.4)	6 (6.2)	15 (15.5)	29 (29.9)	5 (5.2)		1 (1.0)	3 (3.1)	2 (2.1)	5 (5.2)	1 (1.0)		97 (100.0)				
소득 구	250만원 미만	18 (14.9)	10 (8.3)	1 (.8)	15 (12.4)	3 (2.5)	16 (13.2)	31 (25.6)	10 (8.3)		5 (4.1)	2 (1.7)	4 (3.3)	5 (4.1)		1 (.8)	121 (100.0)	47.463	28	.012	
	250-349 만원	10 (6.7)	2 (1.3)	4 (2.7)	29 (19.5)	7 (4.7)	13 (8.7)	46 (30.9)	3 (2.0)	2 (1.3)	17 (11.4)	4 (2.7)	6 (4.0)	3 (2.0)	1 (.7)	2 (1.3)	149 (100.0)				
	350만원 이상	7 (6.2)	4 (3.5)	3 (2.7)	14 (12.4)	4 (3.5)	14 (12.4)	47 (41.6)	6 (5.3)		6 (5.3)	2 (1.8)	1 (.9)	3 (2.7)	2 (1.8)		113 (100.0)				
전체		35 (9.1)	16 (4.2)	8 (2.1)	58 (15.1)	14 (3.7)	43 (11.2)	124 (32.4)	19 (5.0)	2 (.5)	28 (7.3)	8 (2.1)	11 (2.9)	11 (2.9)	3 (.8)	3 (.8)	383 (100.0)				

*항목: ① 스포츠활동 ② 관람(영화, 연극, 전시회, 스포츠 등) ④ 야외활동(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⑥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등 ⑦ 사교(모임, 방문, 집회, 토론, 행사 등) ⑧ 휴식, 수면, 목욕 등 ⑨ TV, 신문, 잡지 등 보기 ⑩ 놀이(바둑, 카드, 고스톱, 컴퓨터오락 등) ⑪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 ⑫ 집안손질, 가사, 정원 손질 ⑬ 창작활동(미술, 음악, 공작, 수예, 회화) ⑭ 가족과의 대화시간 ⑮ 각종 연수(컴퓨터, 외국어 등) ⑯ 외식 ⑰ 기타

<표9>에서 “학기 중 평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TV나 신문, 잡지 등 보기(32.4%), 독서나 사색, 수집, 연구 및 탐방(15.1%), 휴식, 수면이나 목욕(11.2%)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이론적 배경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직업 관련에서 교원과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위와 같은 여가활동은 정적인 활동으로서 기능직이나 단순노동 종사자가 많이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었는데 이 같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의 부족에 의한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교원들이 하고 있음은 이 외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평일의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퇴근 후에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대중매체를 접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직장

에서의 일을 끝내고 나면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것이므로 비신체적인 여가를 즐기고 자 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10> 학기 중 토·일요일의 주요 여가활동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성별	남	21 (12.7)	4 (2.4)	1 (.6)	37 (22.4)	2 (1.2)	7 (4.2)	7 (4.2)	9 (5.5)	18 (10.9)	16 (9.7)	10 (6.1)	19 (11.5)	7 (4.2)	4 (2.4)	2 (1.2)	1 (.6)	165 (100.0)	89.144	15	.000
	여	5 (2.3)	46 (20.9)		23 (10.5)	9 (4.1)	6 (2.7)	17 (7.7)	35 (15.9)	19 (8.6)		19 (8.6)	26 (11.8)	5 (2.3)	7 (3.2)	1 (.5)	2 (.9)	220 (100.0)			
연령	20대	3 (3.6)	36 (42.9)		6 (7.1)	1 (1.2)	2 (2.4)	10 (11.9)	9 (10.7)	6 (7.1)	2 (2.4)	3 (3.6)	1 (1.2)	2 (2.4)	1 (1.2)		2 (2.4)	84 (100.0)	147.911	45	.000
	30대	9 (10.5)	7 (8.1)		14 (16.3)	3 (3.5)		4 (4.7)	16 (18.6)	7 (8.1)	3 (3.5)	8 (9.3)	8 (9.3)	2 (2.3)	5 (5.8)			86 (100.0)			
	40대	6 (5.4)	5 (4.5)	1 (.9)	15 (13.5)	6 (5.4)	4 (3.6)	8 (7.2)	12 (10.8)	14 (12.6)	4 (3.6)	11 (9.9)	17 (15.3)	4 (3.6)	2 (1.8)	1 (.9)	1 (.9)	111 (100.0)			
	50대 이상	8 (7.7)	2 (1.9)		25 (24.0)	1 (1.0)	7 (6.7)	2 (1.9)	7 (6.7)	10 (9.6)	7 (6.7)	7 (6.7)	19 (18.3)	4 (3.8)	3 (2.9)	2 (1.9)		104 (100.0)			
교육수준	사범 2년제교대		5 (9.6)		8 (15.4)	4 (7.7)	1 (1.9)	3 (5.8)	8 (15.4)	7 (13.5)		5 (9.6)	9 (17.3)	1 (1.9)	1 (1.9)			52 (100.0)	42.179	30	.069
	학사	20 (7.7)	42 (16.1)		33 (12.6)	6 (2.3)	8 (3.1)	19 (7.3)	30 (11.5)	23 (8.8)	13 (5.0)	18 (6.9)	28 (10.7)	7 (2.7)	8 (3.1)	3 (1.1)	3 (1.1)	261 (100.0)			
	석사이상	6 (8.3)	3 (4.2)	1 (1.4)	19 (26.4)	1 (1.4)	4 (5.6)	2 (2.8)	6 (8.3)	7 (9.7)	3 (4.2)	6 (8.3)	8 (11.1)	4 (5.6)	2 (2.8)			72 (100.0)			
결혼여부	기혼	23 (8.0)	10 (3.5)	1 (.3)	55 (19.2)	8 (2.8)	10 (3.5)	14 (4.9)	34 (11.8)	28 (9.8)	14 (4.9)	23 (8.0)	44 (15.3)	9 (3.1)	10 (3.5)	3 (1.0)	1 (.3)	287 (100.0)	114.066	15	.000
	미혼	3 (3.1)	40 (40.8)		5 (5.1)	3 (3.1)	3 (3.1)	10 (10.2)	10 (10.2)	9 (9.2)	2 (2.0)	6 (6.1)	1 (1.0)	3 (3.1)	1 (1.0)		2 (2.0)	98 (100.0)			
소득수준	250만원 미만	10 (8.1)	31 (25.2)		15 (12.2)	4 (3.3)	7 (5.7)	7 (5.7)	9 (7.3)	12 (9.8)	7 (5.7)	5 (4.1)	5 (4.1)	3 (2.4)	3 (2.4)	2 (1.6)	3 (2.4)	123 (100.0)	67.460	30	.000
	250-349 만원	10 (6.7)	13 (8.7)		30 (20.1)	3 (2.0)	3 (2.0)	12 (8.1)	19 (12.8)	14 (9.4)	6 (4.0)	7 (4.7)	22 (14.8)	4 (2.7)	5 (3.4)	1 (.7)		149 (100.0)			
	350만원 이상	6 (5.3)	6 (5.3)	1 (.9)	15 (13.3)	4 (3.5)	3 (2.7)	5 (4.4)	16 (14.2)	11 (9.7)	3 (2.7)	17 (15.0)	18 (15.9)	5 (4.4)	3 (2.7)			113 (100.0)			
전체		26 (6.8)	50 (13.0)	1 (.3)	60 (15.6)	11 (2.9)	13 (3.4)	24 (6.2)	44 (11.4)	37 (9.6)	16 (4.2)	29 (7.5)	45 (11.7)	12 (3.1)	11 (2.9)	3 (.8)	3 (.8)	385 (100.0)			

*항목: ① 스포츠활동 ② 관람(영화, 연극, 전시회, 스포츠 등) ③ 여행(국내, 국외) ④ 야외활동(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⑤ 쇼핑 ⑥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등 ⑦ 사교(모임, 방문, 집회, 토론, 행사 등) ⑧ 휴식, 수면, 목욕 등 ⑨ TV, 신문, 잡지 등 보기 ⑩ 놀이(바둑, 카드, 고스톱, 컴퓨터오락 등) ⑪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 ⑫ 집안손질, 가사, 정원 손질 ⑬ 창작활동(미술, 음악, 공작, 수예, 회화) ⑭ 가족과의 대화시간 ⑮ 각종 연수(컴퓨터, 외국어 등) ⑯ 기타

<표10>에서 보면 “학기 중, 토·일요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월평균소득별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는 야외활동(22.4%), 스포츠 활동(12.7%), 집안이나 정원 손질(11.5%)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관람(20.9%), 휴식이나 수면 또는 목욕(15.9%), 집안이나 정원 손질(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는 영화, 연극, 전시회, 스포츠 등의 관람(42.9%), 30대는 휴식, 수면, 목욕(18.6%), 40대는 집안손질, 가사, 정원 손질 (15.3%), 50대 이상은 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등의 야외활동(24.0%)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주말에는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옥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성장에 따라 일상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고, 자동차 대중화로 먼 곳의 여가시설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한다. 또 일주일간의 힘든 일과를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으며, 따분한 일상 생활에서 도피하여 새로운 기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여행이나 스포츠와 같은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개인적 형태의 여가활동을 통하여 공상적 도피를 함으로써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심신 양면에서 기분전환을 주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휴식, 수면, 목욕 등의 활동도 많이 하는데 이런 정적이고 수동적인 여가도 정신과 신체적 피로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활동이라고 본다.

<표11> 지난 여름방학 동안의 주요 여가활동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성 별	남	15 (9.1)	2 (1.2)	19 (11.5)	22 (13.3)	20 (12.1)	4 (2.4)	1 (.6)	7 (4.2)	2 (1.2)	1 (.6)	10 (6.1)	5 (3.0)	2 (1.2)	51 (30.9)		4 (2.4)	165 (100.0)	30.708	15	.010	
	여	6 (2.8)	11 (5.1)	46 (21.2)	15 (6.9)	21 (9.7)	5 (2.3)	7 (3.2)	8 (3.7)	1 (.5)		17 (7.8)	11 (5.1)	2 (.9)	65 (30.0)	1 (.5)	1 (.5)	217 (100.0)				
년 령	20대	2 (2.4)	4 (4.9)	23 (28.0)	7 (8.5)	5 (6.1)	3 (3.7)	1 (1.2)	1 (1.2)	1 (1.2)		3 (3.7)	4 (4.9)	1 (1.2)	25 (30.5)		2 (2.4)	82 (100.0)	46.220	45	.422	
	30대	7 (8.2)		12 (14.1)	8 (9.4)	11 (12.9)	1 (1.2)	3 (3.5)	4 (4.7)			6 (7.1)		1 (1.2)	31 (36.5)		1 (1.2)	85 (100.0)				
	40대	7 (6.3)	5 (4.5)	18 (16.2)	10 (9.0)	14 (12.6)	1 (.9)	2 (1.8)	6 (5.4)	1 (.9)	1 (.9)	5 (4.5)	6 (5.4)		33 (29.7)	1 (.9)	1 (.9)	111 (100.0)				
	50대 이상	5 (4.8)	4 (3.8)	12 (11.5)	12 (11.5)	11 (10.6)	4 (3.8)	2 (1.9)	4 (3.8)	1 (1.0)		13 (12.5)	6 (5.8)	2 (1.9)	27 (26.0)		1 (1.0)	104 (100.0)				
학 력	사범, 2년제교대	1 (1.9)	4 (7.7)	7 (13.5)	9 (17.3)	5 (9.6)		1 (1.9)	2 (3.8)			8 (15.4)	2 (3.8)	1 (1.9)	11 (21.2)	1 (1.9)		52 (100.0)	50.295	30	.012	
	학사	17 (6.6)	9 (3.5)	42 (16.2)	21 (8.1)	30 (11.6)	8 (3.1)	6 (2.3)	6 (2.3)	2 (.8)		17 (6.6)	12 (4.6)	1 (.4)	83 (32.0)		5 (1.9)	259 (100.0)				
	석사이상	3 (4.2)		16 (22.5)	7 (9.9)	6 (8.5)	1 (1.4)	1 (1.4)	7 (9.9)	1 (1.4)	1 (1.4)	2 (2.8)	2 (2.8)	2 (2.8)	22 (31.0)			71 (100.0)				
결 혼	기혼	18 (6.3)	9 (3.1)	37 (12.9)	31 (10.8)	34 (11.9)	6 (2.1)	7 (2.4)	13 (4.5)	2 (.7)	1 (.3)	25 (8.7)	12 (4.2)	4 (1.4)	83 (29.0)	1 (.3)	3 (1.0)	286 (100.0)	25.641	15	.042	
	미혼	3 (3.1)	4 (4.2)	28 (29.2)	6 (6.3)	7 (7.3)	3 (3.1)	1 (1.0)	2 (2.1)	1 (1.0)		2 (2.1)	4 (4.2)		33 (34.4)		2 (2.1)	96 (100.0)				
월 급	250만원 미만	7 (5.8)	2 (1.7)	24 (19.8)	12 (9.9)	13 (10.7)	6 (5.0)	1 (.8)	2 (1.7)	3 (2.5)		5 (4.1)	2 (1.7)	2 (1.7)	39 (32.2)	1 (.8)	2 (1.7)	121 (100.0)	46.814	30	.026	
	250-349 만원	6 (4.0)	6 (4.0)	25 (16.8)	20 (13.4)	17 (11.4)	3 (2.0)	5 (3.4)	3 (2.0)			11 (7.4)	8 (5.4)	2 (1.3)	41 (27.5)		2 (1.3)	149 (100.0)				
	350만원 이상	8 (7.1)	5 (4.5)	16 (14.3)	5 (4.5)	11 (9.8)		2 (1.8)	10 (8.9)		1 (.9)	11 (9.8)	6 (5.4)		36 (32.1)		1 (.9)	112 (100.0)				
전체		21 (5.5)	13 (3.4)	65 (17.0)	37 (9.7)	41 (10.7)	9 (2.4)	8 (2.1)	15 (3.9)	3 (.8)	1 (.3)	27 (7.1)	16 (4.2)	4 (1.0)	116 (30.4)	1 (.3)	5 (1.3)	382 (100.0)				

*항목: ① 스포츠활동 ② 관람(영화, 연극, 전시회, 스포츠 등) ③ 여행(국내, 국외) ④ 야외활동(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⑥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등 ⑦ 사교(모임, 방문, 집회, 토론, 행사 등) ⑧ 휴식, 수면, 목욕 등 ⑨ TV, 신문, 잡지 등 보기 ⑩ 놀이(바둑, 카드, 고스톱, 컴퓨터오락 등) ⑪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 ⑫ 집안손질, 가사, 정원 손질 ⑬ 창작활동(미술, 음악, 공작, 수예, 회화) ⑭ 가족과의 대화시간 ⑮ 각종 연수(컴퓨터, 외국어 등) ⑯ 외식 ⑰ 기타

<표11>에서 “지난 여름방학에 주로 하신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별, 학력, 결혼여부, 월평균소득별로 p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는 컴퓨터, 외국어 등의 각종 연수(30.9%), 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등의 야외활동(13.3%)과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등(12.1%)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컴퓨터, 외국어 등의 각종 연수(30.0%), 국내, 국외 여행(21.2%),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여름방학에는 각종 연수활동으로 지냈고 그런 중에서도 야외활동과 여행을 즐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문화체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른 나라의 사회와 비교됨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표12> 지난 겨울방학 동안의 주요 여가활동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성별	남	20 (12.1)	2 (1.2)	14 (8.5)	18 (10.9)		16 (9.7)	8 (4.8)	7 (4.2)	9 (5.5)	7 (4.2)	4 (2.4)	8 (4.8)	7 (4.2)	3 (1.8)	40 (24.2)	2 (1.2)	165 (100.0)	54.221	15	.000
	여	8 (3.6)	6 (2.7)	48 (21.8)	7 (3.2)	1 (.5)	39 (17.7)	4 (1.8)	6 (2.7)	8 (3.6)	1 (.5)	4 (1.8)	28 (12.7)	13 (5.9)	5 (2.3)	41 (18.6)	1 (.5)	220 (100.0)			
연령	20대	5 (6.0)	3 (3.6)	25 (29.8)	5 (6.0)		12 (14.3)	3 (3.6)	1 (1.2)	1 (1.2)		1 (1.2)	4 (4.8)	1 (1.2)	23 (27.4)		84 (100.0)	79.698	45	.001	
	30대	8 (9.3)	1 (1.2)	11 (12.8)	6 (7.0)		16 (18.6)	3 (3.5)	2 (2.3)	3 (3.5)	2 (2.3)	2 (2.3)	13 (15.1)	2 (2.3)		15 (17.4)	2 (2.3)				86 (100.0)
	40대	8 (7.2)	3 (2.7)	17 (15.3)	6 (5.4)		17 (15.3)	1 (.9)	2 (1.8)	4 (3.6)	5 (4.5)	2 (1.8)	14 (12.6)	9 (8.1)	5 (4.5)	18 (16.2)					111 (100.0)
	50대 이상	7 (6.7)	1 (1.0)	9 (8.7)	8 (7.7)	1 (1.0)	10 (9.6)	8 (7.7)	6 (5.8)	9 (8.7)		4 (3.8)	8 (7.7)	5 (4.8)	2 (1.9)	25 (24.0)	1 (1.0)				104 (100.0)
학력	사범, 2년제교대	2 (3.8)	2 (3.8)	4 (7.7)	7 (13.5)		10 (19.2)			2 (3.8)		3 (5.8)	13 (25.0)	3 (5.8)	1 (1.9)	5 (9.6)		52 (100.0)	77.002	30	.000
	학사	21 (8.0)	6 (2.3)	47 (18.0)	13 (5.0)		42 (16.1)	11 (4.2)	11 (4.2)	5 (1.9)	5 (1.9)	4 (1.5)	19 (7.3)	14 (5.4)	4 (1.5)	56 (21.5)	3 (1.1)	261 (100.0)			
	석사이상	5 (6.9)		11 (15.3)	5 (6.9)	1 (1.4)	3 (4.2)	1 (1.4)	2 (2.8)	10 (13.9)	3 (4.2)	1 (1.4)	4 (5.6)	3 (4.2)	3 (4.2)	20 (27.8)		72 (100.0)			

<표12> 계속

<표12>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결혼여부	기혼	21 (7.3)	4 (1.4)	32 (11.1)	18 (6.3)	1 (.3)	42 (14.6)	11 (3.8)	10 (3.5)	17 (5.9)	7 (2.4)	8 (2.8)	34 (11.8)	16 (5.6)	8 (2.8)	55 (19.2)	3 (1.0)	287 (100.0)	44.852	15	.000
	미혼	7 (7.1)	4 (4.1)	30 (30.6)	7 (7.1)		13 (13.3)	1 (1.0)	3 (3.1)		1 (1.0)		2 (2.0)	4 (4.1)		26 (26.5)		98 (100.0)			
연령	250만원 미만	12 (9.8)	3 (2.4)	25 (20.3)	13 (10.6)		10 (8.1)	3 (2.4)	1 (.8)	4 (3.3)	4 (3.3)	2 (1.6)	9 (7.3)	4 (3.3)	2 (1.6)	30 (24.4)	1 (.8)	123 (100.0)	30.744	30	.428
	250-349만원	8 (5.4)	3 (2.0)	24 (16.1)	5 (3.4)	1 (.7)	24 (16.1)	7 (4.7)	5 (3.4)	7 (4.7)	3 (2.0)	3 (2.0)	17 (11.4)	8 (5.4)	3 (2.0)	30 (20.1)	1 (.7)	149 (100.0)			
	350만원 이상	8 (7.1)	2 (1.8)	13 (11.5)	7 (6.2)		21 (18.6)	2 (1.8)	7 (6.2)	6 (5.3)	1 (.9)	3 (2.7)	10 (8.8)	8 (7.1)	3 (2.7)	21 (18.6)	1 (.9)	113 (100.0)			
전체		28 (7.3)	8 (2.1)	62 (16.1)	25 (6.5)	1 (.3)	55 (14.3)	12 (3.1)	13 (3.4)	17 (4.4)	8 (2.1)	8 (2.1)	36 (9.4)	20 (5.2)	8 (2.1)	81 (21.0)	3 (.8)	385 (100.0)			

*항목: ① 스포츠활동 ② 관람(영화, 연극, 전시회, 스포츠 등) ③ 여행(국내, 국외) ④ 야외활동(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⑤ 쇼핑 ⑥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등 ⑦ 사교(모임, 방문, 집회, 토론, 행사 등) ⑧ 휴식, 수면, 목욕 등 ⑨ TV, 신문, 잡지 등 보기 ⑩ 놀이(바둑, 카드, 고스톱, 컴퓨터오락 등) ⑪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 ⑫ 집안손질, 가사, 정원 손질 ⑬ 창작활동(미술, 음악, 공작, 수예, 회화) ⑭ 가족과의 대화시간 ⑮ 각종 연수(컴퓨터, 외국어 등) ⑯ 기타

<표12>에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의 주요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소득별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결혼여부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컴퓨터, 외국어 등의 각종 연수(24.2%)와 스포츠활동(12.1%), 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등의 야외활동(10.9%)에, 여자는 국내, 국외 여행(21.8%)과 컴퓨터, 외국어 등의 각종 연수(18.6%),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17.7%)의 순으로 나타나서 외국어(영어)교과를 지도하기 위한 연수, 정보화기술교육을 위한 컴퓨터연수 등을 익힘으로서 교육과정에 대처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각종 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20대는 국내외 여행(29.0%)을, 30대는 독서 등의 정적활동(18.6%)을, 40대와 50대 이상은 연수활동(16.2%)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는 연수활동(19.2%)에, 미혼은 국내외 여행(30.6%)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방학을 이용하여 지적이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교사라는 직업의 역할이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가활동

이라고 본다.

<표13> 다가올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⑥	⑦	⑪	⑫	⑬	⑭	⑮				
n표성성	남	7 (4.2)		91 (55.2)	19 (11.5)	10 (6.1)	4 (2.4)		7 (4.2)	10 (6.1)	2 (1.2)	15 (9.1)	165 (100.0)	21.760	10	.016
	여	8 (3.7)	4 (1.8)	149 (68.0)	14 (6.4)	15 (6.8)	2 (.9)	1 (.5)		11 (5.0)	1 (.5)	14 (6.4)	219 (100.0)			
n표성연령	20대	4 (4.8)		53 (63.1)	4 (4.8)	8 (9.5)	1 (1.2)			5 (6.0)		9 (10.7)	84 (100.0)	52.602	30	.007
	30대	6 (7.1)	2 (2.4)	48 (56.5)	11 (12.9)	6 (7.1)	1 (1.2)		1 (1.2)	6 (7.1)	1 (1.2)	3 (3.5)	85 (100.0)			
	40대	1 (.9)	2 (1.8)	70 (63.1)	12 (10.8)	4 (3.6)		1 (.9)		7 (6.3)		14 (12.6)	111 (100.0)			
	50대 이상	4 (3.8)		69 (66.3)	6 (5.8)	7 (6.7)	4 (3.8)		6 (5.8)	3 (2.9)	2 (1.9)	3 (2.9)	104 (100.0)			
n표성교육	사범, 2년제교대	1 (1.9)	1 (1.9)	33 (63.5)	2 (3.8)	6 (11.5)			3 (5.8)	2 (3.8)	2 (3.8)	2 (3.8)	52 (100.0)	30.930	20	.056
	학사	13 (5.0)	1 (.4)	159 (61.2)	22 (8.5)	18 (6.9)	4 (1.5)	1 (.4)	4 (1.5)	16 (6.2)	1 (.4)	21 (8.1)	260 (100.0)			
	석사이상	1 (1.4)	2 (2.8)	48 (66.7)	9 (12.5)	1 (1.4)	2 (2.8)		3 (4.2)	6 (8.3)		6 (8.3)	72 (100.0)			
n표성결혼	기혼	11 (3.8)	4 (1.4)	172 (60.1)	29 (10.1)	17 (5.9)	6 (2.1)	1 (.3)	7 (2.4)	15 (5.2)	3 (1.0)	21 (7.3)	286 (100.0)	12.042	10	.282
	미혼	4 (4.1)		68 (69.4)	4 (4.1)	8 (8.2)				6 (6.1)		8 (8.2)	98 (100.0)			
n표성소득	250만원 미만	9 (7.3)	1 (.8)	70 (56.9)	11 (8.9)	8 (6.5)	3 (2.4)		3 (2.4)	8 (6.5)		10 (8.1)	123 (100.0)	19.076	20	.517
	250-349 만원	4 (2.7)	2 (1.4)	98 (66.2)	11 (7.4)	9 (6.1)	3 (2.0)	1 (.7)	1 (.7)	7 (4.7)	3 (2.0)	9 (6.1)	148 (100.0)			
	350만원 이상	2 (1.8)	1 (.9)	72 (63.7)	11 (9.7)	8 (7.1)			3 (2.7)	6 (5.3)		10 (8.8)	113 (100.0)			
전체		15 (3.9)	4 (1.0)	240 (62.5)	33 (8.6)	25 (6.5)	6 (1.6)	1 (.3)	7 (1.8)	21 (5.5)	3 (.8)	29 (7.6)	384 (100.0)			

*항목: ① 스포츠활동 ② 관람(영화, 연극, 전시회, 스포츠 등) ③ 여행(국내, 국외) ④ 야외활동(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⑥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등 ⑦ 사교(모임, 방문, 집회, 토론, 행사 등) ⑪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 ⑫ 집안손질, 가사, 정원 손질 ⑬ 창작활동(미술, 음

악, 공작, 수예, 회화) ⑭ 가족과의 대화시간 ⑮ 각종 연수(컴퓨터, 외국어 등)

<표13>에서 “다가올 여름방학에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력별, 결혼여부, 소득별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성별, 연령별 변인에서는 $p < .05$ 의 유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여행(55.2%), 야외활동(11.5%) 순으로, 여자는 여행(68.0%)을, 독서 등의 정적활동(6.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 변인에서는 나이 구분 없이 모두 여행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다가올 겨울방학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⑪	⑫	⑬	⑭	⑮					
성별	남	9 (5.5)	2 (1.2)	78 (47.3)	27 (16.4)	2 (1.2)	6 (3.6)	6 (3.6)		2 (1.2)	2 (1.2)	2 (1.2)	9 (5.5)	3 (1.8)	17 (10.3)	165 (100.0)	34.591	13	.001	
	여	13 (5.9)	8 (3.7)	117 (53.4)	9 (4.1)		14 (6.4)	3 (1.4)	2 (.9)		6 (2.7)	1 (.5)	25 (11.4)	2 (.9)	19 (8.7)	219 (100.0)				
연령	20대	6 (7.1)		49 (58.3)	4 (4.8)		5 (6.0)				1 (1.2)		8 (9.5)		11 (13.1)	84 (100.0)	61.143	39	.013	
	30대	5 (5.9)	4 (4.7)	43 (50.6)	7 (8.2)		2 (2.4)	1 (1.2)	1 (1.2)		1 (1.2)		11 (12.9)	2 (2.4)	8 (9.4)	85 (100.0)				
	40대	4 (3.6)	2 (1.8)	55 (49.5)	8 (7.2)		10 (9.0)	3 (2.7)	1 (.9)		1 (.9)	1 (.9)	11 (9.9)	1 (.9)	14 (12.6)	111 (100.0)				
	50대 이상	7 (6.7)	4 (3.8)	48 (46.2)	17 (16.3)	2 (1.9)	3 (2.9)	5 (4.8)		2 (1.9)	5 (4.8)	2 (1.9)	4 (3.8)	2 (1.9)	3 (2.9)	104 (100.0)				
교육수준	사범, 2년제교대	2 (3.8)	1 (1.9)	25 (48.1)	9 (17.3)	2 (3.8)	2 (3.8)	2 (3.8)	1 (1.9)			1 (1.9)	4 (7.7)	2 (3.8)	1 (1.9)	52 (100.0)	38.048	26	.060	
	학사	17 (6.5)	7 (2.7)	129 (49.6)	20 (7.7)		15 (5.8)	4 (1.5)	1 (.4)	2 (.8)	7 (2.7)	1 (.4)	27 (10.4)	3 (1.2)	27 (10.4)	260 (100.0)				
	석사이상	3 (4.2)	2 (2.8)	41 (56.9)	7 (9.7)		3 (4.2)	3 (4.2)			1 (1.4)	1 (1.4)	3 (4.2)		8 (11.1)	72 (100.0)				
결혼여부	기혼	16 (5.6)	9 (3.1)	142 (49.7)	31 (10.8)	2 (.7)	15 (5.2)	9 (3.1)	2 (.7)	2 (.7)	5 (1.7)	3 (1.0)	23 (8.0)	5 (1.7)	22 (7.7)	286 (100.0)	16.855	13	.206	
	미혼	6 (6.1)	1 (1.0)	53 (54.1)	5 (5.1)		5 (5.1)				3 (3.1)		11 (11.2)		14 (14.3)	98 (100.0)				

<표14> 계속

<표14>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⑩	⑪	⑫	⑬	⑭	⑮				
소득수준 250만원 미만 250-349만원 3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1 (8.9)	3 (2.4)	56 (45.5)	14 (11.4)		8 (6.5)	3 (2.4)	1 (.8)	2 (1.6)			13 (10.6)	1 (.8)	11 (8.9)	123 (100.0)	33.736	26	.142
	250-349만원	5 (3.4)	5 (3.4)	73 (49.3)	9 (6.1)	2 (1.4)	8 (5.4)	4 (2.7)	1 (.7)		7 (4.7)	3 (2.0)	14 (9.5)	2 (1.4)	15 (10.1)	148 (100.0)			
	350만원 이상	6 (5.3)	2 (1.8)	66 (58.4)	13 (11.5)		4 (3.5)	2 (1.8)			1 (.9)		7 (6.2)	2 (1.8)	10 (8.8)	113 (100.0)			
전체		22 (5.7)	10 (2.6)	195 (50.8)	36 (9.4)	2 (.5)	20 (5.2)	9 (2.3)	2 (.5)	2 (.5)	8 (2.1)	3 (.8)	34 (8.9)	5 (1.3)	36 (9.4)	384 (100.0)			

*항목: ① 스포츠활동 ② 관람(영화, 연극, 전시회, 스포츠 등) ③ 여행(국내, 국외) ④ 야외활동(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⑤ 쇼핑 ⑥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등 ⑦ 사교(모임, 방문, 집회, 토론, 행사 등) ⑧ 휴식, 수면, 목욕 등 ⑩ 놀이(바둑, 카드, 고스톱, 컴퓨터오락 등) ⑪ 종교 및 사회봉사활동 ⑫ 집안손질, 가사, 정원 손질 ⑬ 창작활동(미술, 음악, 공작, 수예, 회화) ⑭ 가족과의 대화시간 ⑮ 각종 연수(컴퓨터, 외국어 등)

<표14>에서 다가올 겨울방학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학력별, 결혼여부,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연령별 변인에서는 p < .05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는 여행(47.3%), 야외활동(16.4%) 순으로, 여자는 여행(53.4%), 창작활동(11.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 변인에서는 1순위가 여행을, 다음으로 50대에서 야외활동(16.3%)을 택하고 있었다.

<표15> 학교 내에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⑨	⑩	⑬	⑭	⑮	⑰					
성별	남	21 (12.8)	4 (2.4)	2 (1.2)	7 (4.3)	64 (39.0)	4 (2.4)	6 (3.7)	11 (6.7)	2 (1.2)	19 (11.6)	1 (.6)	20 (12.2)	3 (1.8)	164 (100.0)	20.748	12	.054	
	여	21 (9.7)	7 (3.2)	2 (.9)	5 (2.3)	75 (34.7)	2 (.9)	12 (5.6)	6 (2.8)	1 (.5)	57 (26.4)		26 (12.0)	2 (.9)	216 (100.0)				
연령	20대	3 (3.6)	3 (3.6)	2 (2.4)	1 (1.2)	35 (42.2)	2 (2.4)	4 (4.8)	2 (2.4)		21 (25.3)		9 (10.8)	1 (1.2)	83 (100.0)	58.161	36	.011	
	30대	12 (14.1)	2 (2.4)		2 (2.4)	27 (31.8)		5 (5.9)	1 (1.2)	1 (1.2)	23 (27.1)		12 (14.1)		85 (100.0)				
	40대	16 (14.7)	4 (3.7)		5 (4.6)	35 (32.1)	1 (.9)	6 (5.5)	2 (1.8)	2 (1.8)	17 (15.6)		17 (15.6)	4 (3.7)	109 (100.0)				
	50대 이상	11 (10.7)	2 (1.9)	2 (1.9)	4 (3.9)	42 (40.8)	3 (2.9)	3 (2.9)	12 (11.7)		15 (14.6)	1 (1.0)	8 (7.8)		103 (100.0)				

<표15>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⑬	⑭	⑮	⑰				
교원-교원/학생-교원	사범, 2년제교대	5 (10.2)	2 (4.1)		2 (4.1)	13 (26.5)	3 (6.1)	3 (6.1)	3 (6.1)		10 (20.4)		6 (12.2)	2 (4.1)	49 (100.0)	33.239	24	.099	
	학사	30 (11.6)	8 (3.1)	4 (1.5)	5 (1.9)	96 (37.1)	2 (.8)	14 (5.4)	11 (4.2)	3 (1.2)	55 (21.2)	1 (.4)	30 (11.6)		259 (100.0)				
	석사이상	7 (9.7)	1 (1.4)		5 (6.9)	30 (41.7)	1 (1.4)	1 (1.4)	3 (4.2)		11 (15.3)		10 (13.9)	3 (4.2)	72 (100.0)				
교원-교원/교원-교원	기혼	38 (13.4)	7 (2.5)	2 (.7)	11 (3.9)	96 (37.8)	4 (1.4)	15 (5.3)	15 (5.3)	3 (1.1)	53 (18.7)	1 (.4)	35 (12.3)	4 (1.4)	284 (100.0)	16.743	12	.160	
	미혼	4 (4.2)	4 (4.2)	2 (2.1)	1 (1.0)	43 (44.8)	2 (2.1)	3 (3.1)	2 (2.1)		23 (24.0)		11 (11.5)	1 (1.0)	96 (100.0)				
교원-교원/학생-학생	250만원 미만	11 (9.0)	4 (3.3)	1 (.8)	5 (4.1)	48 (39.3)	1 (.8)	8 (6.6)	4 (3.3)		26 (21.3)	1 (.8)	12 (9.8)	1 (.8)	122 (100.0)	16.505	24	.869	
	250-349만원	20 (13.6)	1 (.7)	2 (1.4)	4 (2.7)	52 (35.4)	3 (2.0)	6 (4.1)	8 (5.4)	1 (.7)	30 (20.4)		18 (12.2)	2 (1.4)	147 (100.0)				
	350만원 이상	11 (9.9)	6 (5.4)	1 (.9)	3 (2.7)	39 (35.1)	2 (1.8)	4 (3.6)	5 (4.5)	2 (1.8)	20 (18.0)		16 (14.4)	2 (1.8)	111 (100.0)				
전체		42 (11.1)	11 (2.9)	4 (1.1)	12 (3.2)	139 (36.6)	6 (1.6)	18 (4.7)	17 (4.5)	3 (.8)	76 (20.0)	1 (.3)	46 (12.1)	5 (1.3)	380 (100.0)				

*항목: ① 스포츠활동 ② 관람(영화, 연극, 전시회, 스포츠 등) ③ 여행(국내, 국외) ④ 야외활동(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⑤ 쇼핑 ⑥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등 ⑦ 사교(모임, 방문, 집회, 토론, 행사 등) ⑧ 휴식, 수면, 목욕 등 ⑨ TV, 신문, 잡지 등 보기 ⑩ 놀이(바둑, 카드, 고스톱, 컴퓨터오락 등) ⑬ 창작활동(미술, 음악, 공작, 수예, 회화) ⑭ 가족과의 대화시간 ⑮ 각종 연수(컴퓨터, 외국어 등) ⑰ 기타

<표15>에서 보면 “학교 내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연령별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대(42.2%), 50대 이상(40.8%), 40대(32.1%), 30대(31.8%)의 순으로 독서, 탐방 등의 활동을 원하고 다음으로는 30대(27.1%), 20대(25.3%), 40대(15.6%), 50대 이상(14.6%)의 순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학력, 결혼 여부, 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기성취 및 자아실현 등을 추구하기 위해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표영희는 보고하고 있다⁵⁴⁾.

대부분의 교원들이 독서, 사색, 연구, 창작활동과 같은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현상

54) 표영희(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2.

은 늘 수업준비나 교재연구를 해야하는 직업적 특성과 교수학습지도 기술연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이 교육과정 개편 기간이 단축되는 최근의 상황에서 개인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도 교원의 특성상 예견되는 여가활동이라고 생각된다.

<표16> 교내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유무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2 (1.2)	11 (6.7)	25 (15.3)	102 (62.6)	23 (14.1)	163 (100.0)	33.547	4	.000
	여		4 (1.8)	18 (8.2)	114 (52.1)	83 (37.9)	219 (100.0)			
연령별	20대			10 (11.9)	49 (58.3)	25 (29.8)	84 (100.0)	24.518	12	.017
	30대		2 (2.3)	11 (12.8)	47 (54.7)	26 (30.2)	86 (100.0)			
	40대	2 (1.8)	5 (4.6)	10 (9.2)	53 (48.6)	39 (35.8)	109 (100.0)			
	50대 이상		8 (7.8)	12 (11.7)	67 (65.0)	16 (15.5)	103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5 (9.6)	7 (13.5)	30 (57.7)	10 (19.2)	52 (100.0)	23.691	8	.003
	학사		5 (1.9)	25 (9.6)	155 (59.6)	75 (28.8)	260 (100.0)			
	석사이상	2 (2.9)	5 (7.1)	11 (15.7)	31 (44.3)	21 (30.0)	70 (100.0)			
결혼여부	기혼	2 (.7)	15 (5.3)	32 (11.3)	155 (54.6)	80 (28.2)	284 (100.0)	6.694	4	.153
	미혼			11 (11.2)	61 (62.2)	26 (26.5)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2 (1.6)	2 (1.6)	14 (11.4)	67 (54.5)	38 (30.9)	123 (100.0)	14.452	8	.071
	250-349 만원		7 (4.8)	23 (15.8)	79 (54.1)	37 (25.3)	146 (100.0)			
	350만원 이상		6 (5.3)	6 (5.3)	70 (61.9)	31 (27.4)	113 (100.0)			
전체		2 (.5)	15 (3.9)	43 (11.3)	216 (56.5)	106 (27.7)	382 (100.0)			

*항목: ① 매우 다양하다 ② 다양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표16>에서 “교내에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질문을 보면 남자는 없다(62.6%), 잘 모르겠다(15.3%)를, 여자는 없다(52.1%), 전혀 없다(37.9%)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변인에서는 “없다”는 비율이 50대 이상(65.0%), 20대(58.3%), 30대(54.7%), 40대(48.6%)순으로 나타나서 근무시간 내의 휴식을 겸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17> 교내에 마련 된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 여부 (단위 : 명, %)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성별	남	46 (27.9)	85 (51.5)	33 (20.0)	1 (.6)	165 (100.0)	3.311	3	.346
	여	48 (21.9)	111 (50.7)	59 (26.9)	1 (.5)	219 (100.0)			
연령별	20대	15 (17.9)	43 (51.2)	25 (29.8)	1 (1.2)	84 (100.0)	10.390	9	.320
	30대	23 (26.7)	38 (44.2)	25 (29.1)		86 (100.0)			
	40대	29 (26.4)	55 (50.0)	25 (22.7)	1 (.9)	110 (100.0)			
	50대 이상	27 (26.0)	60 (57.7)	17 (16.3)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6 (30.8)	30 (57.7)	6 (11.5)		52 (100.0)	12.640	6	.049
	학사	54 (20.8)	138 (53.1)	67 (25.8)	1 (.4)	260 (100.0)			
	석사이상	24 (33.3)	28 (38.9)	19 (26.4)	1 (1.4)	72 (100.0)			
결혼여부	기혼	75 (26.2)	146 (51.0)	64 (22.4)	1 (.3)	286 (100.0)	3.193	3	.363
	미혼	19 (19.4)	50 (51.0)	28 (28.6)	1 (1.0)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38 (30.9)	55 (44.7)	29 (23.6)	1 (.8)	123 (100.0)	5.756	6	.451
	250-349 만원	32 (21.5)	81 (54.4)	36 (24.2)		149 (100.0)			
	350만원 이상	24 (21.4)	60 (53.6)	27 (24.1)	1 (.9)	112 (100.0)			
전체		94 (24.5)	196 (51.0)	92 (24.0)	2 (.5)	384 (100.0)			

*항목: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참가하겠다 ③ 생각해 보겠다 ④ 참가하지 않겠다

<표17>에서 교내에서 여가활동 참여에 대해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월평균소득별은 p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으나 학력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57.7%), 학사(53.1%), 석사이상(38.9%)의 순으로 참가하겠다 라고 하여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에 구비해야 할 여가시설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성별	남	131 (27.2)	125 (26.0)	76 (15.8)	7 (1.5)	41 (8.5)	59 (12.3)	6 (1.2)	2 (.4)	8 (1.7)	3 (.6)	6 (1.2)					1 (.2)	1 (.2)		2 (.4)	2 (.4)	11 (2.3)								165 (34.3)
	여	170 (27.1)	159 (25.3)	111 (17.7)	4 (.6)	94 (15.0)	34 (5.4)	13 (2.1)	1 (.2)	6 (1.0)	17 (2.7)	4 (.6)	1 (.2)	1 (.2)	2 (.3)	1 (.2)	1 (.2)	3 (.5)	1 (.2)	1 (.2)							1 (.2)	1 (.2)	1 (.2)	219 (34.9)
연령별	20대	65 (27.5)	60 (25.4)	39 (16.5)		40 (16.9)	10 (4.2)	9 (3.8)	2 (.8)	4 (1.7)	2 (.8)	1 (.4)				1 (.4)											1 (.4)	1 (.4)	1 (.4)	84 (35.6)
	30대	65 (26.4)	65 (26.4)	48 (19.5)	4 (1.6)	29 (11.8)	24 (9.8)	1 (.4)	1 (.4)	5 (2.0)			1 (.4)	1 (.4)													2 (.8)			85 (34.6)
	40대	92 (28.7)	81 (25.2)	61 (19.0)	3 (.9)	33 (10.3)	21 (6.5)	4 (1.2)	1 (.3)	3 (.9)	9 (2.8)	2 (.6)	1 (.3)			1 (.3)	1 (.3)	1 (.3)	3 (.9)	1 (.3)	1 (.3)	1 (.3)	1 (.3)	1 (.3)						111 (34.6)
	50대 이상	79 (25.8)	78 (25.5)	39 (12.7)	4 (1.3)	33 (10.8)	38 (12.4)	5 (1.6)	2 (.7)	7 (2.3)	3 (1.0)	5 (1.6)				1 (.3)	1 (.3)	1 (.3)	1 (.3)	2 (.7)	1 (.3)	1 (.3)	10 (3.3)							104 (34.0)
최종학력	사범,2년 제교대	46 (30.5)	43 (28.5)	19 (12.6)		19 (12.6)	14 (9.3)	3 (2.0)		3 (2.0)								1 (.7)	2 (1.3)		1 (.7)								52 (34.4)	
	학사	195 (26.1)	191 (25.6)	130 (17.4)	8 (1.1)	94 (12.6)	53 (7.1)	15 (2.0)	1 (.1)	6 (.8)	19 (2.5)	6 (.8)	7 (.9)	1 (.1)	1 (.1)	2 (.3)	2 (.3)		1 (.1)	2 (.3)	1 (.1)	2 (.3)	1 (.1)	8 (1.1)	1 (.1)	1 (.1)	1 (.1)	1 (.1)	260 (34.9)	
	석사 이상	60 (28.3)	50 (23.6)	38 (17.9)	3 (1.4)	22 (10.4)	26 (12.3)	1 (.5)	2 (.9)	3 (1.4)	1 (.5)								1 (.5)	1 (.5)		1 (.5)	3 (1.4)						72 (34.0)	
결혼여부	기혼	229 (27.5)	211 (25.3)	142 (17.0)	9 (1.1)	90 (10.8)	78 (9.4)	11 (1.3)	1 (.1)	6 (.7)	19 (2.3)	5 (.6)	6 (.7)	1 (.1)	1 (.1)	2 (.2)	2 (.2)	1 (.1)	4 (.5)	1 (.1)	1 (.1)	2 (.2)	11 (1.3)						286 (34.3)	
	미혼	72 (26.1)	73 (26.4)	45 (16.3)	2 (.7)	45 (16.3)	15 (5.4)	8 (2.9)	2 (.7)	6 (2.2)	2 (.7)	1 (.4)									2 (.7)					1 (.4)	1 (.4)	1 (.4)	98 (35.5)	

<표18> 계속

<표19>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㉑	㉒	㉓	㉔	㉕	㉖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97 (27.8)	84 (24.1)	54 (15.5)	6 (1.7)	47 (13.5)	35 (10.0)	5 (1.4)		2 (.6)	5 (1.4)	1 (.3)	3 (.9)			1 (.3)			1 (.3)	1 (.3)	1 (.3)		5 (1.4)			1 (.3)	123 (35.2)
	250-349만원	116 (27.0)	117 (27.2)	73 (17.0)	1 (.2)	48 (11.2)	32 (7.4)	7 (1.6)		3 (.7)	15 (3.5)	3 (.7)	4 (.9)	1 (.2)	1 (.2)	1 (.2)		1 (.2)	2 (.5)			1 (.2)	2 (.5)	1 (.2)		1 (.2)	149 (34.7)
	350만원 이상	88 (26.7)	83 (25.2)	60 (18.2)	4 (1.2)	40 (12.1)	26 (7.9)	7 (2.1)	1 (.3)	3 (.9)	5 (1.5)	3 (.9)					2 (.6)		1 (.3)		2 (.6)	1 (.3)	4 (1.2)				112 (33.9)
전체		301 (27.1)	284 (25.6)	187 (16.9)	11 (1.0)	135 (12.2)	93 (8.4)	19 (1.7)	1 (.1)	8 (.7)	25 (2.3)	7 (.6)	7 (.6)	1 (.1)	1 (.1)	2 (.2)	2 (.2)	1 (.1)	4 (.4)	1 (.1)	3 (.3)	2 (.2)	11 (1.0)	1 (.1)	1 (.1)	1 (.1)	384 (34.6)

*항목: ① 휴게실 ② 운동시설 ③ 정보자료실 ④ 체육관 ⑤ 음악감상실 ⑥ 샤워실 ⑦ 도서실 ⑧ 맨스스포츠실 ⑨ 화실 ⑩ 영화감상실 ⑪ 어학실 ⑫ 학습자료제작실 ⑬ 예절실 ⑭ 서예실 ⑮ 명상실 ⑯ 여유교실 ⑰ 수영장 ⑱ 탈의실 ⑲ 보건실 ⑳ 수면실 ㉑ 당구장 ㉒ 놀이시설 ㉓ 테니스장 ㉔ 탁구장 ㉕ 음악연주실 ㉖ 음악연주실

<표18>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내 구비해야 할 여가시설에 대해 변인에 관계없이 휴게실(27.1%), 운동시설(25.6%), 정보자료실(16.9%), 음악 감상실(12.2%), 샤워실(8.4%), 영화 감상실(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모두가 휴게실을 모두 꼽은 것은 학교시설 구조가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시설이 있더라도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고 원하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교원복지 차원의 휴게실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음 순서가 운동시설을 원하는 것은 현대인이 가장 부족한 것이 신체활동인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학교 사회가 건강해짐은 평범한 사회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스포츠의 순 기능이 보편화되어 이것이 교원의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때 더욱 활기찬 삶이 될 것이다.

2. 여가유형과 여가만족도

제주도 초등교원들의 여가유형을 여러 가지 조건들, 즉 여가 목적, 여가비용, 여

가프로그래, 선호 여가시설, 여가장애요인, 여가선용의 개선점 등을 변인별로 분석하였다.

<표19> 여가활동의 목적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41 (24.8)	64 (38.8)	41 (24.8)	5 (3.0)	14 (8.5)		165 (100.0)	24.555	5	.000	
	여	19 (8.7)	127 (58.0)	54 (24.7)	5 (2.3)	13 (5.9)	1 (.5)	219 (100.0)				
연령별	20대		59 (70.2)	21 (25.0)	1 (1.2)	3 (3.6)		84 (100.0)	44.747	15	.000	
	30대	14 (16.3)	41 (47.7)	16 (18.6)	4 (4.7)	11 (12.8)		86 (100.0)				
	40대	18 (16.4)	50 (45.5)	33 (30.0)	2 (1.8)	6 (5.5)	1 (.9)	110 (100.0)				
	50대 이상	28 (26.9)	41 (39.4)	25 (24.0)	3 (2.9)	7 (6.7)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9 (17.6)	28 (54.9)	12 (23.5)	1 (2.0)	1 (2.0)		51 (100.0)	18.534	10	.047	
	학사	33 (12.6)	136 (52.1)	61 (23.4)	8 (3.1)	23 (8.8)		261 (100.0)				
	석사이상	18 (25.0)	27 (37.5)	22 (30.6)	1 (1.4)	3 (4.2)	1 (1.4)	72 (100.0)				
결혼여부	기혼	56 (19.6)	129 (45.1)	70 (24.5)	7 (2.4)	24 (8.4)		286 (100.0)	22.066	5	.001	
	미혼	4 (4.1)	62 (63.3)	25 (25.5)	3 (3.1)	3 (3.1)	1 (1.0)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19 (15.4)	58 (47.2)	33 (26.8)	1 (.8)	11 (8.9)	1 (.8)	123 (100.0)	9.453	10	.490	
	250-349 만원	25 (16.9)	71 (48.0)	36 (24.3)	4 (2.7)	12 (8.1)		148 (100.0)				
	350만원 이상	16 (14.2)	62 (54.9)	26 (23.0)	5 (4.4)	4 (3.5)		113 (100.0)				
전체		60 (15.6)	191 (49.7)	95 (24.7)	10 (2.6)	27 (7.0)	1 (.3)	384 (100.0)				

*항목: ①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 ②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전환을 위해 ③ 자아실현을 위해 ④ 직무와 관련된 일의 능률 향상 ⑤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⑥ 기타

<표19>에서 여가활동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성별, 학력, 결혼여부에서는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별에서는 남·여 모두 스트레스와 기분전환을 위해(38.8%, 58.0%), 자아실현을 위해(24.8%, 24.7%),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24.8%, 8.7%)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변인에서는 20대, 30대, 40대가 스트레스와 기분전환을 위해(70.7%, 47.7%, 45.5%), 자아실현을 위해(25.0%, 18.6%, 30.0%),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0%, 16.3%, 16.4%)인 반면 50대 이상은 스트레스와 기분전환을 위해(39.4%),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26.9%), 자아실현을 위해(24.0%)로 나타났으며,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 학사 소지자, 석사이상의 변인에서도 스트레스와 기분전환을 위해(54.9%, 52.1%, 37.5%), 자아실현을 위해(23.5%, 23.4%, 30.6%),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17.6%, 12.6%, 25.0%)로 나타났다. 또 기혼자와 미혼자도 스트레스와 기분전환을 위해(45.1%, 63.3%), 자아실현을 위해(24.5%, 25.5%),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19.6%, 4.1%)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제주도 초등 교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직무 수행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0> 한달 평균 여가활동 비용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χ^2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27 (16.4)	54 (32.7)	40 (24.2)	20 (12.1)	9 (5.5)	15 (9.1)	165 (100.0)	17.016	5	.004
	여	53 (24.1)	93 (42.3)	47 (21.4)	14 (6.4)	7 (3.2)	6 (2.7)	220 (100.0)			
연령별	20대	14 (16.7)	32 (38.1)	23 (27.4)	8 (9.5)	6 (7.1)	1 (1.2)	84 (100.0)	14.951	15	.455
	30대	22 (25.6)	33 (38.4)	18 (20.9)	6 (7.0)	4 (4.7)	3 (3.5)	86 (100.0)			
	40대	23 (20.7)	45 (40.5)	21 (18.9)	9 (8.1)	5 (4.5)	8 (7.2)	111 (100.0)			
	50대 이상	21 (20.2)	37 (35.6)	25 (24.0)	11 (10.6)	1 (1.0)	9 (8.7)	104 (100.0)			

<표20>계속

<표20>에서 계속

변인 \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3 (25.0)	14 (26.9)	16 (30.8)	8 (15.4)		1 (1.9)	52 (100.0)	28.574	10	.001
	학사	52 (19.9)	114 (43.7)	52 (19.9)	22 (8.4)	11 (4.2)	10 (3.8)	261 (100.0)			
	석사이상	15 (20.8)	19 (26.4)	19 (26.4)	4 (5.6)	5 (6.9)	10 (13.9)	72 (100.0)			
결혼여부	기혼	68 (23.7)	111 (38.7)	61 (21.3)	22 (7.7)	8 (2.8)	17 (5.9)	287 (100.0)	12.849	5	.025
	미혼	12 (12.2)	36 (36.7)	26 (26.5)	12 (12.2)	8 (8.2)	4 (4.1)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27 (22.0)	45 (36.6)	27 (22.0)	6 (4.9)	7 (5.7)	11 (8.9)	123 (100.0)	21.577	10	.017
	250-349만원	31 (20.8)	65 (43.6)	36 (24.2)	11 (7.4)	1 (.7)	5 (3.4)	149 (100.0)			
	350만원 이상	22 (19.5)	37 (32.7)	24 (21.2)	17 (15.0)	8 (7.1)	5 (4.4)	113 (100.0)			
전체		80 (20.8)	147 (38.2)	87 (22.6)	34 (8.8)	16 (4.2)	21 (5.5)	385 (100.0)			

*항목: ① 5만원 미만 ② 5-10만원 미만 ③ 10-15만원 미만 ④ 15-20만원 미만 ⑤ 20-25만원 미만 ⑥ 25만원 이상

<표20>에서 한달 평균 여가활동 비용을 보면 성별, 학력별, 결혼여부, 소득별로 유의수준 p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남자는 5-10만원 미만(32.5%), 10-15만원 미만(24.2%), 5만원 미만(16.4%)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5-10만원 미만(42.3%), 5만원 미만(24.1%), 10-15만원 미만(21.4%)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학력별 변인에서는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졸업자는 10-15만원 미만(30.8%), 5-10만원 미만(26.9%), 5만원 미만(25.0%)의 순으로, 학사 소지자는 5-10만원 미만(43.7%), 10-15만원 미만(19.9%), 5만원 미만(19.9%)의 순으로, 석사이상의 집단은 10-15만원 미만(26.4%), 5-10만원 미만(26.4%), 5만원 미만(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자는 5-10만원 미만(38.7%), 5만원 미만(23.7%), 10-15만원 미만(21.3%)의 순으로, 미혼자는 5-10만원 미만(36.7%), 10-15만원 미만(26.5%), 5만원 미만(12.2%)의 순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월평균 소득 250

만원 미만 집단, 250-350만원 미만의 집단, 350만원 이상의 집단 모두가 5-10만원 미만(36.6%, 43.6%, 32.7%), 10-15만원 미만(22.0%, 24.2%, 21.2%), 5만원 미만(22.0%, 20.8%,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집단에서 월평균 5-10만원의 범위에서 지출은 다소 적은 액수라고 여겨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가이용 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여가비용은 총 1,377,226원이며, 이중 여행·나들이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 54.1%인 745,499원으로 가장 많으며, 문화활동 지출은 6.5%인 89,657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과반수가 여행·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을 선호하며, 여가비용 지출을 확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여가관련 소비자 만족제고 및 건전 여가 소비문화 정착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표21> 교내에서 이용하는 주요 여가시설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40 (24.7)	61 (37.7)	31 (19.1)	3 (1.9)	9 (5.6)	18 (11.1)	162 (100.0)	51.840	5	.000	
	여	8 (3.7)	133 (60.7)	55 (25.1)	3 (1.4)	2 (.9)	18 (8.2)	219 (100.0)				
연령별	20대	2 (2.4)	57 (68.7)	17 (20.5)			7 (8.4)	83 (100.0)	59.398	15	.000	
	30대	7 (8.2)	48 (56.5)	21 (24.7)		3 (3.5)	6 (7.1)	85 (100.0)				
	40대	9 (8.3)	50 (45.9)	34 (31.2)	3 (2.8)	3 (2.8)	10 (9.2)	109 (100.0)				
	50대 이상	30 (28.8)	39 (37.5)	14 (13.5)	3 (2.9)	5 (4.8)	13 (12.5)	104 (100.0)				

<표21>계속

55) 한국소비자보호원(2002), 전계 사이트. p.2.

<표21>에서 계속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9 (17.3)	28 (53.8)	6 (11.5)	3 (5.8)	3 (5.8)	3 (5.8)	52 (100.0)	23.398	10	.009
	학사	24 (9.3)	138 (53.3)	65 (25.1)	2 (.8)	6 (2.3)	24 (9.3)	259 (100.0)			
	석사이상	15 (21.4)	28 (40.0)	15 (21.4)	1 (1.4)	2 (2.9)	9 (12.9)	70 (100.0)			
결혼여부	기혼	44 (15.5)	129 (45.4)	67 (23.6)	6 (2.1)	11 (3.9)	27 (9.5)	284 (100.0)	20.360	5	.001
	미혼	4 (4.1)	65 (67.0)	19 (19.6)			9 (9.3)	97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11 (9.1)	71 (58.7)	25 (20.7)	2 (1.7)		12 (9.9)	121 (100.0)	16.953	10	.075
	250-349 만원	21 (14.1)	67 (45.0)	40 (26.8)	4 (2.7)	7 (4.7)	10 (6.7)	149 (100.0)			
	350만원 이상	16 (14.4)	56 (50.5)	21 (18.9)		4 (3.6)	14 (12.6)	111 (100.0)			
전체		48 (12.6)	194 (50.9)	86 (22.6)	6 (1.6)	11 (2.9)	36 (9.4)	381 (100.0)			

*항목: ① 교무실 ② 교실 ③ 휴게실 ④ 연구실 ⑤ 운동시설 ⑥ 기타

<표21>에서 “귀하께서는 교내에서 어떤 여가시설을 주로 이용하십니까?”에 대해 통계적으로 p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남자는 교실(37.7%), 교무실(24.7%), 휴게실(19.1%)의 순으로, 여자는 교실(60.7%), 휴게실(25.1%), 기타(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는 교실(68.7%), 휴게실(20.5%), 기타(8.4%)로, 30대는 교실(56.5%), 휴게실(24.7%), 교무실(8.2%)로 나타났으며, 40대는 교실(45.9%), 휴게실(31.21%), 기타(9.2%)의 순으로, 50대 이상은 교실(37.5%), 교무실(28.8%), 휴게실(13.5%)로 나타났는가 하면,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실(53.8%), 교무실(17.3%), 휴게실(11.5%)의 순으로, 학사는 교실(53.3%), 휴게실(25.1%), 교무실 혹은 기타(9.3%)의 순으로 나타났고, 석사 이상은 교실(40.0%), 휴게실(21.4%), 교무실(21.4%)로 나타났다. 또 기혼자는 교실(45.4%), 휴게실(23.6%),

교무실(15.5%)로, 미혼은 교실(67.0%), 휴게실(19.6%), 기타(9.3%)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제주도의 초등교사는 아동들과 하루종일 교실에서 수업과 담임으로서의 생활 지도를 겸한 교실생활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자는 기타의 장소에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했는데 건강유지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다.

<표22> 교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②	③	④	⑤				
성별	남	5 (3.1)	74 (45.4)	56 (34.4)	28 (17.2)	163 (100.0)	6.103	3	.107
	여	5 (2.3)	74 (33.6)	95 (43.2)	46 (20.9)	220 (100.0)			
연령별	20대	1 (1.2)	31 (36.9)	43 (51.2)	9 (10.7)	84 (100.0)	15.182	9	.086
	30대	2 (2.4)	30 (35.3)	36 (42.4)	17 (20.0)	85 (100.0)			
	40대	2 (1.8)	41 (37.3)	38 (34.5)	29 (26.4)	110 (100.0)			
	50대 이상	5 (4.8)	46 (44.2)	34 (32.7)	19 (18.3)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3 (5.8)	26 (50.0)	15 (28.8)	8 (15.4)	52 (100.0)	10.847	6	.093
	학사	5 (1.9)	98 (37.7)	111 (42.7)	46 (17.7)	260 (100.0)			
	석사이상	2 (2.8)	24 (33.8)	25 (35.2)	20 (28.2)	71 (100.0)			
결혼여부	기혼	9 (3.2)	111 (38.9)	103 (36.1)	62 (21.8)	285 (100.0)	7.765	3	.051
	미혼	1 (1.0)	37 (37.8)	48 (49.0)	12 (12.2)	98 (100.0)			

<표22> 계속

<표22>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②	③	④	⑤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4 (3.3)	39 (32.0)	55 (45.1)	24 (19.7)	122 (100.0)	4.219	6	.647	
	250-349만원	3 (2.0)	61 (40.9)	57 (38.3)	28 (18.8)	149 (100.0)				
	350만원 이상	3 (2.7)	48 (42.9)	39 (34.8)	22 (19.6)	112 (100.0)				
전체		10 (2.6)	148 (38.6)	151 (39.4)	74 (19.3)	383 (100.0)				

*항목: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하다 ⑤ 매우 불만족하다

<표22>에서 “교내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의 <표16>과 <표18>에서 본 바와 같이 교내에서는 시설이나 공간의 부족, 그리고 프로그램이 없음으로서 불만족을 느끼는 교원들이 58.7%이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교내의 여가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시켜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점차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표23> 학교관리자의 여가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1 (.6)	33 (20.0)	78 (47.3)	42 (25.5)	11 (6.7)	165 (100.0)	27.758	4	.000	
	여	1 (.5)	11 (5.0)	100 (45.7)	70 (32.0)	37 (16.9)	219 (100.0)				

<표23> 계속

<표23>에서 계속

변인 \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연령별	20대	1 (1.2)	3 (3.6)	37 (44.6)	36 (43.4)	6 (7.2)	83 (100.0)	31.232	12	.002
	30대		14 (16.3)	31 (36.0)	28 (32.6)	13 (15.1)	86 (100.0)			
	40대		10 (9.0)	53 (47.7)	28 (25.2)	20 (18.0)	111 (100.0)			
	50대 이상	1 (1.0)	17 (16.3)	57 (54.8)	20 (19.2)	9 (8.7)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5 (9.6)	32 (61.5)	10 (19.2)	5 (9.6)	52 (100.0)	15.448	8	.051
	학사	2 (.8)	24 (9.2)	117 (45.0)	85 (32.7)	32 (12.3)	260 (100.0)			
	석사이상		15 (20.8)	29 (40.3)	17 (23.6)	11 (15.3)	72 (100.0)			
결혼여부	기혼	1 (.3)	36 (12.5)	137 (47.7)	71 (24.7)	42 (14.6)	287 (100.0)	14.061	4	.007
	미혼	1 (1.0)	8 (8.2)	41 (42.3)	41 (42.3)	6 (6.2)	97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2 (1.6)	16 (13.1)	55 (45.1)	39 (32.0)	10 (8.2)	122 (100.0)	10.101	8	.258
	250-349 만원		13 (8.7)	75 (50.3)	40 (26.8)	21 (14.1)	149 (100.0)			
	350만원 이상		15 (13.3)	48 (42.5)	33 (29.2)	17 (15.0)	113 (100.0)			
전체		2 (.5)	44 (11.5)	178 (46.4)	112 (29.1)	48 (12.5)	384 (100.0)			

*항목: ① 아주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아주 낮다

<표23>에서 학교관리자의 여가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별로 통계적으로 p <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남자는 보통이다(47.3%), 낮다(25.5%), 높다(20.0%)의 순으로, 여자는 보통이다(45.7%), 낮다(32.0%), 아주 낮다(16.0%)로 나타났고, 20대와 40대의 집단은 보통이다(44.6%, 47.7%), 낮다(43.4%, 25.2%), 아주 낮다(7.2%, 18.0%)의 순으로, 30대와 50대 이상은 보통이다(36.0%, 54.8%), 낮다(32.6%, 19.2%), 높다(16.2%, 16.3%)의 순으로 나타났

며, 기혼자는 보통이다(47.7%), 낮다(24.7%), 아주 낮다(14.6%)의 순으로, 미혼은 보통이다(42.3%), 낮다(42.3%), 높다(8.2%)의 순으로 나타나서 초등학교원들이 보는 학교관리자의 여가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 이하의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학교관리자들이 여가에 대한 인식이 낮고, 따라서 여가선용에 대해 관심의 전환을 일깨우고 있다.

<표24> 여가활동의 장애요인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91 (55.2)	20 (12.1)	46 (27.9)	1 (.6)	6 (3.6)	1 (.6)	165 (100.0)	22.912	5	.000
	여	164 (74.5)	11 (5.0)	36 (16.4)	1 (.5)	2 (.9)	6 (2.7)	220 (100.0)			
연령별	20대	68 (81.0)		12 (14.3)		1 (1.2)	3 (3.6)	84 (100.0)	36.738	15	.001
	30대	62 (72.1)	3 (3.5)	18 (20.9)		1 (1.2)	2 (2.3)	86 (100.0)			
	40대	67 (60.4)	16 (14.4)	21 (18.9)	2 (1.8)	4 (3.6)	1 (.9)	111 (100.0)			
	50대 이상	58 (55.8)	12 (11.5)	31 (29.8)		2 (1.9)	1 (1.0)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31 (59.6)	3 (5.8)	18 (34.6)				52 (100.0)	30.332	10	.001
	학사	186 (71.3)	14 (5.4)	47 (18.0)	2 (.8)	5 (1.9)	7 (2.7)	261 (100.0)			
	석사이상	38 (52.8)	14 (19.4)	17 (23.6)		3 (4.2)		72 (100.0)			
결혼여부	기혼	181 (63.1)	29 (10.1)	64 (22.3)	2 (.7)	7 (2.4)	4 (1.4)	287 (100.0)	10.646	5	.059
	미혼	74 (75.5)	2 (2.0)	18 (18.4)		1 (1.0)	3 (3.1)	98 (100.0)			

<표24>계속

<표24>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90 (73.2)	13 (10.6)	17 (13.8)			3 (2.4)	123 (100.0)	19.966	10	.030
	250-349만원	94 (63.1)	9 (6.0)	39 (26.2)	2 (1.3)	5 (3.4)		149 (100.0)			
	350만원 이상	71 (62.8)	9 (8.0)	26 (23.0)		3 (2.7)	4 (3.5)	113 (100.0)			
전체		255 (66.2)	31 (8.1)	82 (21.3)	2 (.5)	8 (2.1)	7 (1.8)	385 (100.0)			

*항목: ① 시간부족 ② 경제적 이유 ③ 장소 및 시설부족 ④ 건강상의 이유 ⑤ 흥미 부족 ⑥ 기타

<표24>에서 "여가활동의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녀 모두 시간부족(55.2%, 74.5%), 장소 및 시설부족(27.9%, 16.4%), 경제적 이유(12.1%, 5.0%)의 순으로 나타났고,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도 시간부족(81.0%, 72.1%, 60.4%, 55.8%), 장소 및 시설부족(14.2%, 20.9%, 18.9%, 29.8%), 경제적 이유(0%, 3.5%, 14.4%, 11.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별, 소득별 변인에서 비율은 다소 다르더라도 지적하는 순서는 같게 나타났다. 문화체육부(1995)에서 실시한 「국민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보면 불만의 요인으로 시간이 없어서(26.5%, 시설과 장소 부족(24.2%), 비용이 없어서(15.3%)의 순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제주도 초등학교원의 인식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교원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타 직종에 비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가활동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분석한 Romsa와 Hoffman은 상·하의 사회계층과 여가활동 집단이 능동적이나 수동적이나에 따라 상이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보다 능동적인 집단에서의 여가장애는 '시간, 비용, 시설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밝혔다⁵⁶⁾. 이것은 본 연구와도 비슷하게 나타나서 제주도 초등학교원들이 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점으로 수업시간 이외의 잡무경감을 바

라고 있다.

<표25>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한 개선점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남	57 (34.5)	13 (7.9)	11 (6.7)	20 (12.1)	44 (26.7)	20 (12.1)	165 (100.0)	27.127	5	.000	
	여	33 (15.0)	9 (4.1)	18 (8.2)	39 (17.7)	95 (43.2)	26 (11.8)	220 (100.0)				
연령별	20대	12 (14.3)	4 (4.8)	4 (4.8)	11 (13.1)	42 (50.0)	11 (13.1)	84 (100.0)	33.714	15	.004	
	30대	18 (20.9)	2 (2.3)	11 (12.8)	14 (16.3)	33 (38.4)	8 (9.3)	86 (100.0)				
	40대	24 (21.6)	4 (3.6)	8 (7.2)	21 (18.9)	38 (34.2)	16 (14.4)	111 (100.0)				
	50대 이상	36 (34.6)	12 (11.5)	6 (5.8)	13 (12.5)	26 (25.0)	11 (10.6)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3 (25.0)	4 (7.7)	6 (11.5)	8 (15.4)	15 (28.8)	6 (11.5)	52 (100.0)	8.983	10	.534	
	학사	54 (20.7)	13 (5.0)	17 (6.5)	44 (16.9)	101 (38.7)	32 (12.3)	261 (100.0)				
	석사이상	23 (31.9)	5 (6.9)	6 (8.3)	7 (9.7)	23 (31.9)	8 (11.1)	72 (100.0)				
결혼여부	기혼	76 (26.5)	17 (5.9)	24 (8.4)	46 (16.0)	90 (31.4)	34 (11.8)	287 (100.0)	13.170	5	.022	
	미혼	14 (14.3)	5 (5.1)	5 (5.1)	13 (13.3)	49 (50.0)	12 (12.2)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24 (19.5)	10 (8.1)	13 (10.6)	12 (9.8)	54 (43.9)	10 (8.1)	123 (100.0)	22.328	10	.014	
	250-349 만원	46 (30.9)	6 (4.0)	8 (5.4)	23 (15.4)	49 (32.9)	17 (11.4)	149 (100.0)				
	350만원 이상	20 (17.7)	6 (5.3)	8 (7.1)	24 (21.2)	36 (31.9)	19 (16.8)	113 (100.0)				
전체		90 (23.4)	22 (5.7)	29 (7.5)	59 (15.3)	139 (36.1)	46 (11.9)	385 (100.0)				

*항목: ① 여가시설 확충 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 행정관리자의 이해 ④ 자유로운 출·퇴근
⑤ 수업 외 잡무 경감 ⑥ 주당 총 수업시간 감축 ⑦ 기타

56) Romsa, G. & Hoffman, W.(1980), *op. cit.* pp.321~328

<표25>에서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소득별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 여 모두가 수업 외 잡무경감(26.7%, 43.2%), 여가시설 확충(34.5%, 15.0%), 자유로운 출·퇴근(12.1%, 17.7%)의 순으로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여가시설 확충(34.6%), 수업 외 잡무경감(25.0%), 자유로운 출·퇴근(12.5%)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수업 외 잡무경감(31.9%), 자유로운 출·퇴근(21.2%) 여가시설 확충(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모든 연령대의 교원이 수업 외 잡무경감을 불만으로 지적한 것에 비해 50대 이상의 집단은 여가시설 확충을 개선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50대 이상의 집단은 타 연령대의 교원보다 업무분담 면에서 다소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생활만족도

교원들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학교 내에서 여가활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임무수행, 동료 간 친교,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소득별로 분석하였다.

<표26> 나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한 행정관리자의 인정도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χ^2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성별	남	19 (11.5)	72 (43.6)	67 (40.6)	5 (3.0)	2 (1.2)	165 (100.0)	11.735	4	.019	
	여	8 (3.6)	90 (40.9)	114 (51.8)	7 (3.2)	1 (.5)	220 (100.0)				

<표26> 계속

<표26>에서 계속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연령별	20대	2 (2.4)	25 (29.8)	52 (61.9)	3 (3.6)	2 (2.4)	84 (100.0)	31.388	12	.002
	30대		39 (45.3)	43 (50.0)	4 (4.7)		86 (100.0)			
	40대	14 (12.6)	51 (45.9)	43 (38.7)	2 (1.8)	1 (.9)	111 (100.0)			
	50대 이상	11 (10.6)	47 (45.2)	43 (41.3)	3 (2.9)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3 (5.8)	20 (38.5)	28 (53.8)	1 (1.9)		52 (100.0)	13.225	8	.104
	학사	13 (5.0)	110 (42.1)	128 (49.0)	8 (3.1)	2 (.8)	261 (100.0)			
	석사이상	11 (15.3)	32 (44.4)	25 (34.7)	3 (4.2)	1 (1.4)	72 (100.0)			
결혼여부	기혼	25 (8.7)	133 (46.3)	120 (41.8)	8 (2.8)	1 (.3)	287 (100.0)	19.071	4	.001
	미혼	2 (2.0)	29 (29.6)	61 (62.2)	4 (4.1)	2 (2.0)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8 (6.5)	48 (39.0)	65 (52.8)	1 (.8)	1 (.8)	123 (100.0)	8.500	8	.386
	250-349 만원	9 (6.0)	65 (43.6)	69 (46.3)	6 (4.0)		149 (100.0)			
	350만원 이상	10 (8.8)	49 (43.4)	47 (41.6)	5 (4.4)	2 (1.8)	113 (100.0)			
전체		27 (7.0)	162 (42.1)	181 (47.0)	12 (3.1)	3 (.8)	385 (100.0)			

<표26>의 “나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한 행정관리자의 인정도”를 보면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별로 p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만족(43.6%), 보통(40.6%), 아주 만족(11.5%)의 순으로, 여자는 보통(51.8%), 만족(40.9%), 아주 만족(3.6%)의 순으로 나났는가 하면, 20대와 30대는 보통(61.9%, 50.0%), 만족(29.8%, 45.3%), 불만족(3.6%, 4.7%)의 순으로 나타났고 40대와 50대 이상은 만족(45.9%, 45.2%), 보통(38.7%, 41.3%), 아주 만족(12.6%,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혼자는 만족(46.3%), 보통(41.8%), 아주 만족(8.7%)의 순으로 나타났고 미혼은 보통(62.2%), 만족(29.9%), 불만족(4.1%)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인정을 받고 있으며 경험과 연륜이 많을수록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기혼자보다 미혼이 불만족 하는 것은 수업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미숙함에도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젊은 기백을 유감 없이 표출함으로서 상·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 있을 수도 있다.

<표27>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x ²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성별	남	12 (7.3)	80 (48.5)	62 (37.6)	11 (6.7)		165 (100.0)	40.176	4	.000
	여	2 (.9)	54 (24.7)	135 (61.6)	27 (12.3)	1 (.5)	219 (100.0)			
연령별	20대	1 (1.2)	9 (10.7)	54 (64.3)	19 (22.6)	1 (1.2)	84 (100.0)	70.949	12	.000
	30대		28 (32.6)	50 (58.1)	8 (9.3)		86 (100.0)			
	40대	4 (3.6)	40 (36.4)	58 (52.7)	8 (7.3)		110 (100.0)			
	50대 이상	9 (8.7)	57 (54.8)	35 (33.7)	3 (2.9)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8 (34.6)	32 (61.5)	2 (3.8)		52 (100.0)	23.097	8	.003
	학사	6 (2.3)	85 (32.7)	138 (53.1)	30 (11.5)	1 (.4)	260 (100.0)			
	석사이상	8 (11.1)	31 (43.1)	27 (37.5)	6 (8.3)		72 (100.0)			

<표27> 계속

<표27>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결혼여부	기혼	13 (4.5)	119 (41.6)	133 (46.5)	20 (7.0)	1 (.3)	286 (100.0)	31.873	4	.000
	미혼	1 (1.0)	15 (15.3)	64 (65.3)	18 (18.4)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4 (3.3)	35 (28.7)	70 (57.4)	13 (10.7)		122 (100.0)	6.078	8	.638
	250-349만원	5 (3.4)	57 (38.3)	73 (49.0)	14 (9.4)		149 (100.0)			
	350만원 이상	5 (4.4)	42 (37.2)	54 (47.8)	11 (9.7)	1 (.9)	113 (100.0)			
전체		14 (3.6)	134 (34.9)	197 (51.3)	38 (9.9)	1 (.3)	384 (100.0)			

<표27>의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에서 보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결혼여부 별로 p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는 만족(48.5%), 보통(37.6%), 아주 만족(7.3%)의 순으로, 여자는 보통(61.6%), 만족(24.7%), 불만족(12.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집단은 보통(64.3%), 불만족(22.6%), 만족(10.7%)의 순으로, 30대와 40대 집단은 보통(58.1%, 52.7%), 만족(32.6%, 36.4%), 불만족(9.3%, 7.3%)의 순으로, 50대 이상의 집단은 만족(54.8%), 보통(33.7%), 아주 만족(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졸업자와 학사소지자는 보통(61.5%, 53.1%), 만족(34.6%, 32.7%), 불만족(3.8%, 11.5%)의 순으로, 석사 이상은 만족(43.1%), 보통(37.5%), 아주 만족(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보통(46.5%), 만족(41.6%), 불만족(7.0%)의 순으로, 미혼은 보통(65.3%), 불만족(18.4%), 만족(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높으며 50대 이상의 교원이 타 연령층보다 만족도가 높고, 석사 이상 학력자가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혼자가 미혼보다는 다소 보통이상의 만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도 초등학교원의 남·여 구성비가 3.5 : 6.5로서 교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 교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경영면에서 남자 교원의 의사가 많이 작용되고, 학교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50대 이상 교원의 의사결정력이 젊은 20~30대의 변화를 갈망하는 참신하고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삼켜버리고 있다. 이는 이들이 짜여진 조직과 직무에서 만족을 느끼며 근무해오는 동안 상위 지위에 오르거나 연륜을 쌓아왔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표28> 지역사회인의 나에 대한 지명도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성별	남	6 (3.6)	61 (37.0)	91 (55.2)	2 (1.2)	5 (3.0)	165 (100.0)	44.938	4	.000	
	여	3 (1.4)	31 (14.2)	151 (68.9)	31 (14.2)	3 (1.4)	219 (100.0)				
연령별	20대	1 (1.2)	5 (6.0)	53 (63.1)	19 (22.6)	6 (7.1)	84 (100.0)	75.180	12	.000	
	30대		14 (16.3)	63 (73.3)	9 (10.5)		86 (100.0)				
	40대	4 (3.6)	33 (30.0)	70 (63.6)	3 (2.7)		110 (100.0)				
	50대 이상	4 (3.8)	40 (38.5)	56 (53.8)	2 (1.9)	2 (1.9)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 (1.9)	12 (23.1)	37 (71.2)	2 (3.8)		52 (100.0)	14.441	8	.071	
	학사	4 (1.5)	56 (21.5)	166 (63.8)	28 (10.8)	6 (2.3)	260 (100.0)				
	석사이상	4 (5.6)	24 (33.3)	39 (54.2)	3 (4.2)	2 (2.8)	72 (100.0)				
결혼여부	기혼	8 (2.8)	84 (29.4)	178 (62.2)	14 (4.9)	2 (.7)	286 (100.0)	42.937	4	.000	
	미혼	1 (1.0)	8 (8.2)	64 (65.3)	19 (19.4)	6 (6.1)	98 (100.0)				

<표28> 계속

<표28>에서 계속

변인 \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월 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	3 (2.5)	17 (13.9)	87 (71.3)	12 (9.8)	3 (2.5)	122 (100.0)	13.552	8	.094
	250-349만원	4 (2.7)	41 (27.5)	85 (57.0)	16 (10.7)	3 (2.0)	149 (100.0)			
	350만원 이상	2 (1.8)	34 (30.1)	70 (61.9)	5 (4.4)	2 (1.8)	113 (100.0)			
전체		9 (2.3)	92 (24.0)	242 (63.0)	33 (8.6)	8 (2.1)	384 (100.0)			

<표28>에서 “지역사회인이 교원에 대하여 교원의 의견제시, 의사결정에 대한 수용 또는 인정하는 정도”를 보면 최종학력, 월 평균 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별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여자는 남자보다 보통(68.9%)의 정도를, 만족의 정도는 남자(40.0%)가 여자(15.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보통 정도를 나타내지만 30대(73.3%)에서 더 높다. 그러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집단은 50대 이상(42.3%)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또 기혼자 미혼 모두 보통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만족의 정도는 기혼자(32.2%)가 미혼(9.2%)보다 더 높다. 따라서 지역사회인이 초등교원에 대한 인정 정도는 보통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9> 봉급 만족도

(단위 : 명, %)

변인 \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성별	남	2 (1.2)	25 (15.2)	98 (59.8)	37 (22.6)	2 (1.2)	164 (100.0)	6.860	4	.143
	여	2 (.9)	45 (20.5)	136 (62.1)	30 (13.7)	6 (2.7)	219 (100.0)			

<표29>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연령별	20대		15 (18.1)	55 (66.3)	9 (10.8)	4 (4.8)	83 (100.0)	10.675	12	.557
	30대	1 (1.2)	16 (18.6)	54 (62.8)	15 (17.4)		86 (100.0)			
	40대	1 (.9)	18 (16.4)	66 (60.0)	23 (20.9)	2 (1.8)	110 (100.0)			
	50대 이상	2 (1.9)	21 (20.2)	59 (56.7)	20 (19.2)	2 (1.9)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5 (28.8)	28 (53.8)	8 (15.4)	1 (1.9)	52 (100.0)	17.349	8	.027
	학사	2 (.8)	48 (18.5)	166 (63.8)	38 (14.6)	6 (2.3)	260 (100.0)			
	석사이상	2 (2.8)	7 (9.9)	40 (56.3)	21 (29.6)	1 (1.4)	71 (100.0)			
결혼여부	기혼	4 (1.4)	53 (18.5)	169 (59.1)	56 (19.6)	4 (1.4)	286 (100.0)	7.527	4	.111
	미혼		17 (17.5)	65 (67.0)	11 (11.3)	4 (4.1)	97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1 (.8)	19 (15.4)	73 (59.3)	26 (21.1)	4 (3.3)	123 (100.0)	12.993	8	.112
	250-349 만원	3 (2.0)	22 (14.9)	95 (64.2)	27 (18.2)	1 (.7)	148 (100.0)			
	350만원 이상		29 (25.9)	66 (58.9)	14 (12.5)	3 (2.7)	112 (100.0)			
전체		4 (1.0)	70 (18.3)	234 (61.1)	67 (17.5)	8 (2.1)	383 (100.0)			

<표29>의 “나의 봉급은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종 학력별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졸업자와 학사소지자는 보통(63.8%, 53.8%), 만족(28.8%, 18.5%), 불만족(15.4%, 14.6%)의 순으로, 석사 이상은 보통(56.3%), 불만족(29.6%), 만족(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의 직종에 있거나, 같은 직종에 있더라도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교직은 임금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이 없으며 따라서 타 직종에 비해 봉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고학력자는 저학력자 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고 보아 왔고 그렇게 대우해 왔다. 따라서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졸업자와 학사소지자는 보통 내지 만족을 나타내는가 하면 석사이상은 보통 내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30> 삶의 전체에서 나의 바람에 대한 성취 정도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성별	남	2 (1.2)	37 (22.6)	97 (59.1)	24 (14.6)	4 (2.4)	164 (100.0)	2.634	4	.621
	여	1 (.5)	45 (20.5)	134 (61.2)	37 (16.9)	2 (.9)	219 (100.0)			
연령별	20대	1 (1.2)	18 (21.4)	54 (64.3)	10 (11.9)	1 (1.2)	84 (100.0)	8.941	12	.708
	30대	1 (1.2)	24 (28.2)	41 (48.2)	17 (20.0)	2 (2.4)	85 (100.0)			
	40대	1 (.9)	20 (18.2)	69 (62.7)	18 (16.4)	2 (1.8)	110 (100.0)			
	50대 이상		20 (19.2)	67 (64.4)	16 (15.4)	1 (1.0)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1 (21.2)	32 (61.5)	8 (15.4)	1 (1.9)	52 (100.0)	5.182	8	.738
	학사	2 (.8)	55 (21.2)	162 (62.5)	37 (14.3)	3 (1.2)	259 (100.0)			
	석사이상	1 (1.4)	16 (22.2)	37 (51.4)	16 (22.2)	2 (2.8)	72 (100.0)			
결혼여부	기혼	2 (.7)	58 (20.4)	174 (61.1)	47 (16.5)	4 (1.4)	285 (100.0)	1.191	4	.880
	미혼	1 (1.0)	24 (24.5)	57 (58.2)	14 (14.3)	2 (2.0)	98 (100.0)			

<표30>에서 계속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2 (1.6)	30 (24.6)	70 (57.4)	18 (14.8)	2 (1.6)	122 (100.0)	9.371	8	.312
	250-349만원	1 (.7)	24 (16.1)	94 (63.1)	29 (19.5)	1 (.7)	149 (100.0)			
	350만원 이상		28 (25.0)	67 (59.8)	14 (12.5)	3 (2.7)	112 (100.0)			
전체		3 (.8)	82 (21.4)	231 (60.3)	61 (15.9)	6 (1.6)	383 (100.0)			

<표30>에서 “삶의 전체에서 나의 바람에 대한 성취 정도”를 보면 성별, 연령별, 최종학력, 결혼여부, 월평균소득 등 모든 변인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22.2%)이 불만족(17.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박무철은 능력이나 기능 및 통제적 발휘가 일을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 최선을 다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거나 자신의 기능 및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것 등이 중요하다⁵⁷⁾고 하였고, Iris 와 Barrett는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 가정 및 여가생활에도 만족도가 높다⁵⁸⁾고 하였다. 오세복은 그의 논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직업으로 교사라는 직종이 다른 직업에 비해 인정을 받는 직업이고, 여성 스스로도 전문직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음은 교원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⁵⁹⁾고 하였는데 제주도의 초등교원들도 다소의 만족을 보이고 있다.

57) 박무철(1991), “여가활동 참여가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0~153.

58) B. Iris & G. V. Barrett(1972), *Some Relations Between Job and Life Satisfaction and Job Import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p.56, pp.301-304.

59) 오세복(1999), 전계 논문. p.123.

<표31> 관리자의 교직원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도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	22 (13.3)	98 (59.4)	40 (24.2)	3 (1.8)	2 (1.2)	165 (100.0)	19.280	4	.001	
	여	12 (5.5)	111 (50.5)	72 (32.7)	20 (9.1)	5 (2.3)	220 (100.0)				
연령별	20대	4 (4.8)	41 (48.8)	28 (33.3)	9 (10.7)	2 (2.4)	84 (100.0)	29.024	12	.004	
	30대	3 (3.5)	51 (59.3)	27 (31.4)	5 (5.8)		86 (100.0)				
	40대	13 (11.7)	51 (45.9)	35 (31.5)	7 (6.3)	5 (4.5)	111 (100.0)				
	50대 이상	14 (13.5)	66 (63.5)	22 (21.2)	2 (1.9)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5 (9.6)	28 (53.8)	12 (23.1)	4 (7.7)	3 (5.8)	52 (100.0)	23.087	8	.003	
	학사	17 (6.5)	142 (54.4)	82 (31.4)	19 (7.3)	1 (.4)	261 (100.0)				
	석사이상	12 (16.7)	39 (54.2)	18 (25.0)		3 (4.2)	72 (100.0)				
결혼여부	기혼	30 (10.5)	158 (55.1)	78 (27.2)	17 (5.9)	4 (1.4)	287 (100.0)	6.021	4	.198	
	미혼	4 (4.1)	51 (52.0)	34 (34.7)	6 (6.1)	3 (3.1)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7 (5.7)	70 (56.9)	38 (30.9)	5 (4.1)	3 (2.4)	123 (100.0)	7.228	8	.512	
	250-349 만원	12 (8.1)	80 (53.7)	46 (30.9)	9 (6.0)	2 (1.3)	149 (100.0)				
	350만원 이상	15 (13.3)	59 (52.2)	28 (24.8)	9 (8.0)	2 (1.8)	113 (100.0)				
전체		34 (8.8)	209 (54.3)	112 (29.1)	23 (6.0)	7 (1.8)	385 (100.0)				

<표31>에서 “관리자의 교직원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도”에 대해 성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로 p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남자(72.7%)가 여자(56.0%)보다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50대 이상(77.0%)은 다른 연령대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석사이상(70.9%)이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졸업자와 학사소지자 보다 더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32> 학교의 교사 개인의 발전을 위한 혜택 부여 정도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	18 (10.9)	77 (46.7)	56 (33.9)	10 (6.1)	4 (2.4)	165 (100.0)	35.236	4	.000
	여	3 (1.4)	70 (31.8)	108 (49.1)	36 (16.4)	3 (1.4)	220 (100.0)			
연령별	20대	2 (2.4)	17 (20.2)	48 (57.1)	16 (19.0)	1 (1.2)	84 (100.0)	38.419	12	.000
	30대	4 (4.7)	37 (43.0)	37 (43.0)	7 (8.1)	1 (1.2)	86 (100.0)			
	40대	6 (5.4)	40 (36.0)	45 (40.5)	19 (17.1)	1 (.9)	111 (100.0)			
	50대 이상	9 (8.7)	53 (51.0)	34 (32.7)	4 (3.8)	4 (3.8)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 (1.9)	20 (38.5)	23 (44.2)	7 (13.5)	1 (1.9)	52 (100.0)	6.184	8	.627
	학사	14 (5.4)	95 (36.4)	118 (45.2)	29 (11.1)	5 (1.9)	261 (100.0)			
	석사이상	6 (8.3)	32 (44.4)	23 (31.9)	10 (13.9)	1 (1.4)	72 (100.0)			
결혼여부	기혼	17 (5.9)	124 (43.2)	114 (39.7)	27 (9.4)	5 (1.7)	287 (100.0)	16.222	4	.003
	미혼	4 (4.1)	23 (23.5)	50 (51.0)	19 (19.4)	2 (2.0)	98 (100.0)			

<표32> 계속

<표32>에서 계속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월 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	6 (4.9)	45 (36.6)	55 (44.7)	13 (10.6)	4 (3.3)	123 (100.0)	13.239	8	.104
	250-349 만원	9 (6.0)	48 (32.2)	74 (49.7)	16 (10.7)	2 (1.3)	149 (100.0)			
	350만원 이상	6 (5.3)	54 (47.8)	35 (31.0)	17 (15.0)	1 (.9)	113 (100.0)			
전체		21 (5.5)	147 (38.2)	164 (42.6)	46 (11.9)	7 (1.8)	385 (100.0)			

<표32>에서 “학교의 교사 개인의 발전을 위한 혜택 부여 정도”에 대해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 별로 p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그렇다(46.7%)를, 여자는 그저 그렇다(49.1%)를 나타내고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는 그저 그런 상태(57.1%)를, 50대 이상은 혜택이 있음(59.7%)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혼은 기혼보다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여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33>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참가도

(단위 : 명, %)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성 별	남	15 (9.1)	85 (51.5)	58 (35.2)	7 (4.2)	165 (100.0)	12.318	3	.006
	여	9 (4.1)	88 (40.2)	103 (47.0)	19 (8.7)	219 (100.0)			
연 령 별	20대	4 (4.8)	39 (46.4)	35 (41.7)	6 (7.1)	84 (100.0)	6.395	9	.700
	30대	7 (8.1)	40 (46.5)	33 (38.4)	6 (7.0)	86 (100.0)			
	40대	3 (2.7)	49 (44.5)	49 (44.5)	9 (8.2)	110 (100.0)			
	50대 이상	10 (9.6)	45 (43.3)	44 (42.3)	5 (4.8)	104 (100.0)			

<표33>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 (1.9)	11 (21.2)	32 (61.5)	8 (15.4)	52 (100.0)	26.375	6	.000	
	학사	17 (6.5)	120 (46.2)	109 (41.9)	14 (5.4)	260 (100.0)				
	석사이상	6 (8.3)	42 (58.3)	20 (27.8)	4 (5.6)	72 (100.0)				
결혼여부	기혼	19 (6.6)	124 (43.4)	123 (43.0)	20 (7.0)	286 (100.0)	1.386	3	.709	
	미혼	5 (5.1)	49 (50.0)	38 (38.8)	6 (6.1)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9 (7.4)	64 (52.5)	39 (32.0)	10 (8.2)	122 (100.0)	9.929	6	.128	
	250-349 만원	9 (6.0)	67 (45.0)	63 (42.3)	10 (6.7)	149 (100.0)				
	350만원 이상	6 (5.3)	42 (37.2)	59 (52.2)	6 (5.3)	113 (100.0)				
전체		24 (6.3)	173 (45.1)	161 (41.9)	26 (6.8)	384 (100.0)				

<표33>에서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참가도”에 대해 성별, 최종학력별로 p <.05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서 남자(60.6%)가 여자(44.3%)보다 더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에서는 석사 이상(66.6%), 학사(52.7%),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졸업자(23.1%) 순으로 긍정적으로 참가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승진과 관련된 가산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근래에는 정부의 여성 우대정책에 의하여 여자교원도 연수에 적극 참가함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34>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	15 (9.1)	93 (56.7)	46 (28.0)	7 (4.3)	3 (1.8)	164 (100.0)	39.935	4	.000	
	여	1 (.5)	82 (37.6)	112 (51.4)	20 (9.2)	3 (1.4)	218 (100.0)				
연령별	20대	1 (1.2)	27 (32.1)	48 (57.1)	6 (7.1)	2 (2.4)	84 (100.0)	44.985	12	.000	
	30대	2 (2.4)	37 (43.5)	38 (44.7)	8 (9.4)		85 (100.0)				
	40대	1 (.9)	50 (45.9)	45 (41.3)	11 (10.1)	2 (1.8)	109 (100.0)				
	50대 이상	12 (11.5)	61 (58.7)	27 (26.0)	2 (1.9)	2 (1.9)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30 (58.8)	19 (37.3)	2 (3.9)		51 (100.0)	28.315	8	.000	
	학사	6 (2.3)	116 (44.8)	115 (44.4)	17 (6.6)	5 (1.9)	259 (100.0)				
	석사이상	10 (13.9)	29 (40.3)	24 (33.3)	8 (11.1)	1 (1.4)	72 (100.0)				
결혼여부	기혼	13 (4.6)	142 (50.0)	104 (36.6)	21 (7.4)	4 (1.4)	284 (100.0)	11.009	4	.026	
	미혼	3 (3.1)	33 (33.7)	54 (55.1)	6 (6.1)	4 (2.0)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3 (2.4)	50 (40.7)	59 (48.0)	7 (5.7)	4 (3.3)	123 (100.0)	8.918	8	.349	
	250-349만원	7 (4.7)	72 (48.6)	56 (37.8)	11 (7.4)	2 (1.4)	148 (100.0)				
	350만원 이상	6 (5.4)	53 (47.7)	43 (38.7)	9 (8.1)		111 (100.0)				
전체		16 (4.2)	175 (45.8)	158 (41.4)	27 (7.1)	6 (1.6)	382 (100.0)				

<표34>에서 “우리학교에서의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월평균 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별, 연령별, 최종학력, 결혼여부 별로 p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65.8%)는 여자(38.1%)보다 긍정적으로, 50대 이상(70.2%)

은 20대(33.3%)보다 긍정적이며,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졸업자(58.8%)가 학사(47.1%)나 석사이상(54.2%)보다 더 높게 긍정적임을 나타내고 있고, 미혼자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긍정 면이 조금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젊고 낮은 경력자는 열의가 왕성할 때이지만 대학시절 배운 지식과 소신만으로는 일선 학교의 제반 조직과 운영에 적응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근무평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적인 사고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근무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고경력자는 보직을 갖게되거나 학교행정에 참여하여 리더쉽을 작용하기 시작하므로 또 다른 사회적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이로써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인사에 비합리적이라고 하여 생활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많을수록 합리적이며 어느 정도 만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승진에 대한 기대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	19 (11.6)	64 (39.0)	57 (34.8)	21 (12.8)	3 (1.8)	164 (100.0)	61.085	4	.000
	여	3 (1.4)	34 (15.5)	92 (42.0)	72 (32.9)	18 (8.2)	219 (100.0)			
연령별	20대	1 (1.2)	14 (16.7)	39 (46.4)	23 (27.4)	7 (8.3)	84 (100.0)	37.526	12	.000
	30대	2 (2.4)	23 (27.1)	42 (49.4)	15 (17.6)	3 (3.5)	85 (100.0)			
	40대	5 (4.5)	27 (24.5)	43 (39.1)	32 (29.1)	3 (2.7)	110 (100.0)			
	50대 이상	14 (13.5)	34 (32.7)	25 (24.0)	23 (22.1)	8 (7.7)	104 (100.0)			

<표35> 계속

<표35>에서 계속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2 (3.8)	10 (19.2)	12 (23.1)	23 (44.2)	5 (9.6)	52 (100.0)	53.497	8	.000
	학사	8 (3.1)	58 (22.4)	117 (45.2)	60 (23.2)	16 (6.2)	259 (100.0)			
	석사이상	12 (16.7)	30 (41.7)	20 (27.8)	10 (13.9)		72 (100.0)			
결혼여부	기혼	21 (7.4)	87 (30.5)	99 (34.7)	64 (22.5)	14 (4.9)	285 (100.0)	22.895	4	.000
	미혼	1 (1.0)	11 (11.2)	50 (51.0)	29 (29.6)	7 (7.1)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5 (4.1)	23 (18.9)	68 (55.7)	19 (15.6)	7 (5.7)	122 (100.0)	27.606	8	.001
	250-349 만원	11 (7.4)	45 (30.2)	38 (25.5)	47 (31.5)	8 (5.4)	149 (100.0)			
	350만원 이상	6 (5.4)	30 (26.8)	43 (38.4)	27 (24.1)	6 (5.4)	112 (100.0)			
전체		22 (5.7)	98 (25.6)	149 (38.9)	93 (24.3)	21 (5.5)	383 (100.0)			

<표35>에서 “나는 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승진되리라 믿는다”라고 예상하는 물음에 대해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월평균소득별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높고, 50대가 20대보다 높게 나타났는가 하면, 석사이상(58.4%)은 기대가 높고 사범 및 2년제 교육대학졸업자(53.8%)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미혼자는 아직 때가 안 되었음을 아는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250-350만원 미만의 소득자(37.6%)가 타 집단에 비해 기대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36> 교직원 복지에 대한 학교당국과의 자유로운 상의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	8 (4.9)	65 (40.1)	58 (35.8)	27 (16.7)	4 (2.5)	162 (100.0)	69.056	4	.000	
	여	3 (1.4)	19 (8.7)	91 (41.6)	88 (40.2)	18 (8.2)	219 (100.0)				
연령별	20대		2 (2.4)	29 (34.5)	43 (51.2)	10 (11.9)	84 (100.0)	81.242	12	.000	
	30대		27 (31.4)	25 (29.1)	31 (36.0)	3 (3.5)	86 (100.0)				
	40대	4 (3.6)	17 (15.5)	53 (48.2)	29 (26.4)	7 (6.4)	110 (100.0)				
	50대 이상	7 (6.9)	38 (37.6)	42 (41.6)	12 (11.9)	2 (2.0)	101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15 (28.8)	24 (46.2)	11 (21.2)	2 (3.8)	52 (100.0)	29.027	8	.000	
	학사	3 (1.2)	50 (19.5)	103 (40.1)	86 (33.5)	15 (5.8)	257 (100.0)				
	석사이상	8 (11.1)	19 (26.4)	22 (30.6)	18 (25.0)	5 (6.9)	72 (100.0)				
결혼여부	기혼	11 (3.9)	75 (26.5)	119 (42.0)	67 (23.7)	11 (3.9)	283 (100.0)	38.376	4	.000	
	미혼		9 (9.2)	30 (30.6)	48 (49.0)	11 (11.2)	98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1 (.8)	21 (17.2)	48 (39.3)	45 (36.9)	7 (5.7)	122 (100.0)	11.290	8	.186	
	250-349 만원	7 (4.8)	37 (25.3)	61 (41.8)	33 (22.6)	8 (5.5)	146 (100.0)				
	350만원 이상	3 (2.7)	26 (23.0)	40 (35.4)	37 (32.7)	7 (6.2)	113 (100.0)				
전체		11 (2.9)	84 (22.0)	149 (39.1)	115 (30.2)	22 (5.8)	381 (100.0)				

<표36>에서 “나는 교직원의 복지에 대하여 학교당국과 자유롭게 상의한다.”에 대해 월평균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연령, 연령별, 최종학력, 결혼여부, 월평균소득별로 p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 적극성(45.0%)을 보이고 있고, 40-50대는 그저 그런 상태를 보이는 반면 20대는 그렇지 않음(51.2%)을 나타낸다. 그리고 미혼은 상의를 하지 않는다(49.0%)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50대 이상의 남자가 학교당국과 상의하고 있으며 타협의 분위기를 잘 맞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교육 현장의 실태를 보면 체육시간에 이용할 탈의실 정도도 갖추어 있지 못한 학교가 태반이다.

<표37> 지역사회 교원을 위한 여가시설 구비정도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	1 (.6)	14 (8.5)	61 (37.0)	69 (41.8)	20 (12.1)	165 (100.0)	6.388	4	.172	
	여		9 (4.1)	74 (34.1)	111 (51.2)	23 (10.6)	217 (100.0)				
연령별	20대		2 (2.4)	25 (29.8)	49 (58.3)	8 (9.5)	84 (100.0)	13.969	12	.303	
	30대		3 (3.5)	31 (36.5)	43 (50.6)	8 (9.4)	85 (100.0)				
	40대		9 (8.3)	38 (34.9)	48 (44.0)	14 (12.8)	109 (100.0)				
	50대 이상	1 (1.0)	9 (8.7)	41 (39.4)	40 (38.5)	13 (12.5)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4 (7.7)	19 (36.5)	24 (46.2)	5 (9.6)	52 (100.0)	14.387	8	.072	
	학사	1 (.4)	11 (4.2)	91 (35.1)	132 (51.0)	24 (9.3)	259 (100.0)				
	석사이상		8 (11.3)	25 (35.2)	24 (33.8)	14 (19.7)	71 (100.0)				
결혼여부	기혼	1 (.4)	20 (7.0)	106 (37.3)	125 (44.0)	32 (11.3)	284 (100.0)	5.763	4	.218	
	미혼		3 (3.1)	29 (29.6)	55 (56.1)	11 (11.2)	98 (100.0)				

<표37> 계속

<표37>에서 계속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월 평 균 소 득	250만원 미만	1 (.8)	9 (7.4)	44 (36.1)	51 (41.8)	17 (13.9)	122 (100.0)	6.712	8	.568
	250-349 만원		7 (4.8)	55 (37.4)	73 (49.7)	12 (8.2)	147 (100.0)			
	350만원 이상		7 (6.2)	36 (31.9)	56 (49.6)	14 (12.4)	113 (100.0)			
전체		1 (.3)	23 (6.0)	135 (35.3)	180 (47.1)	43 (11.3)	382 (100.0)			

<표37>의 지역사회는 교원을 위한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월평균소득별의 모든 항목에서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응은 타 직종의 사회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하는데 인색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의 장래를 맡아야 할 어린 세대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교원들이 먼저 여가를 지내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 알고 전승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하면 교원들에는 우선적으로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와의 특별한 행정적 계약에 의해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개방되고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갈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역시 국민 복지차원의 여가시설이 없는데서 기인된다고 본다. 이는 실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38> 동료교사와의 친절과 유대 강화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성별	남	20 (12.1)	104 (63.0)	36 (21.8)	5 (3.0)	165 (100.0)	2.036	3	.565
	여	20 (9.1)	135 (61.6)	59 (26.9)	5 (2.3)	219 (100.0)			
연령별	20대	6 (7.2)	46 (55.4)	25 (30.1)	6 (7.2)	83 (100.0)	20.236	9	.017
	30대	6 (7.0)	61 (70.9)	17 (19.8)	2 (2.3)	86 (100.0)			
	40대	12 (10.8)	66 (59.5)	33 (29.7)		111 (100.0)			
	50대 이상	16 (15.4)	66 (63.5)	20 (19.2)	2 (1.9)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3 (5.8)	31 (59.6)	18 (34.6)		52 (100.0)	12.670	6	.049
	학사	25 (9.6)	168 (64.6)	57 (21.9)	10 (3.8)	260 (100.0)			
	석사이상	12 (16.7)	40 (55.6)	20 (27.8)		72 (100.0)			
결혼여부	기혼	33 (11.5)	186 (64.8)	65 (22.6)	3 (1.0)	287 (100.0)	15.092	3	.002
	미혼	7 (7.2)	53 (54.6)	30 (30.9)	7 (7.2)	97 (100.0)			
월평균소득	250만원 미만	16 (13.1)	65 (53.3)	34 (27.9)	7 (5.7)	122 (100.0)	11.105	6	.085
	250-349 만원	14 (9.4)	98 (65.8)	35 (23.5)	2 (1.3)	149 (100.0)			
	350만원 이상	10 (8.8)	76 (67.3)	26 (23.0)	1 (.9)	113 (100.0)			
전체		40 (10.4)	239 (62.2)	95 (24.7)	10 (2.6)	384 (100.0)			

<표38>에서 “내가 먼저 동료교사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유대를 강화하려고 한다.”에 대해 성별, 월평균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별로 p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모두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쪽으로 반응을 하여 인간관계유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이상 모두가 최하 62.6%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학력에서는 65.4.2% 이상, 결혼여부에서는 61.8%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직장 내 또는 이웃 사회에서 사람을 사귀고 친해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같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지역은 좁은 곳이라서 한 직장에서 근무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두 세 번 만날 경우가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게 되면公私적으로 여가를 함께 지내게 되며 동료애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대가 강화되고 인연이 넓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표39>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

(단위 : 명, %)

변인		항목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남	9 (5.5)	38 (23.0)	88 (53.3)	28 (17.0)	2 (1.2)	165 (100.0)	4.015	4	.404	
	여	6 (2.7)	65 (29.5)	116 (52.7)	30 (13.6)	3 (1.4)	220 (100.0)				
연령별	20대	2 (2.4)	27 (32.1)	46 (54.8)	9 (10.7)		84 (100.0)	16.842	12	.156	
	30대	1 (1.2)	27 (31.4)	43 (50.0)	14 (16.3)	1 (1.2)	86 (100.0)				
	40대	3 (2.7)	25 (22.5)	63 (56.8)	19 (17.1)	1 (.9)	111 (100.0)				
	50대 이상	9 (8.7)	24 (23.1)	52 (50.0)	16 (15.4)	3 (2.9)	104 (100.0)				
최종학력	사범, 2년제교대	4 (7.7)	7 (13.5)	31 (59.6)	10 (19.2)		52 (100.0)	18.833	8	.016	
	학사	5 (1.9)	80 (30.7)	137 (52.5)	34 (13.0)	5 (1.9)	261 (100.0)				
	석사이상	6 (8.3)	16 (22.2)	36 (50.0)	14 (19.4)		72 (100.0)				
결혼여부	기혼	13 (4.5)	76 (26.5)	149 (51.9)	45 (15.7)	4 (1.4)	287 (100.0)	1.798	4	.773	
	미혼	2 (2.0)	27 (27.6)	55 (56.1)	13 (13.3)	1 (1.0)	98 (100.0)				

<표39> 계속

〈표39〉에서 계속

변인		항 목					계	x ²	df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월 평 균 소 득	250만원 미만	3 (2.4)	31 (25.2)	69 (56.1)	19 (15.4)	1 (.8)	123 (100.0)	5.259	8	.730
	250-349 만원	6 (4.0)	37 (24.8)	83 (55.7)	20 (13.4)	3 (2.0)	149 (100.0)			
	350만원 이상	6 (5.3)	35 (31.0)	52 (46.0)	19 (16.8)	1 (.9)	113 (100.0)			
전체		15 (3.9)	103 (26.8)	204 (53.0)	58 (15.1)	5 (1.3)	385 (100.0)			

〈표39〉의 “나는 현재 매우 좋은 생활조건을 가지고 있다.”에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월평균소득별로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으나 학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석사 이상은 69.4%, 학사는 67.4%, 사범 및 2년제 교대졸업자는 78.8%가 만족하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30.7%)보다 불만족(69.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지역은 좁기도 하겠지만 단시간에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도 부족하고 육지와 교통이 항공이나 해상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은 아닐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 초등학교 교원 385명을 대상으로 여가실태와 생활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주도 초등학교원들의 여가활용 시간은 평일에는 퇴근 후에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을 휴식정도로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내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독서, 탐방, 창작활동을 꼽고 있다.

또한 교원들도 기능직이나 단순노동 종사자가 하는 것과 같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의 부족에 의한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둘째, 주말의 여가시간은 2-4시간 미만이며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주말에는 평일보다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옥외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틀에 박힌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 있게 즐기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방학에는 컴퓨터, 외국어 등의 각종 연수활동, 스포츠활동, 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등의 야외활동과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해외여행은 문화 체험이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넷째, 학교에 구비해야 할 여가시설로는 휴게실, 운동시설, 정보자료실, 음악 감상실, 샤워실, 영화 감상실 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학교시설 구조가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시설은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고 원하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교원복지 차원의 시설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여가선용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20~30대의 교원은 수업 외 잡무경감을, 50대 이상의 교원은 여가시설 확충을 짚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의 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점차로 설치·운영하고 또 사회시설 이용에 관해 행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경직된 근무시간을 지역사회 환경에 맞게 자유로운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50대 이상의 교원과 석사 이상 학력자가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이고, 기혼자가 미혼보다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지역사회인이 교원에 대해 인정하는 정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인이 초등교원을 대하는 인정 정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여덟째, 삶의 전체에서 나의 바람에 대한 성취 정도는 능력이나 기능 및 통제적 발휘가 교직을 수행하는데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 최선을 다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거나 자신의 기능 및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것,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직업으로 전문직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는 것으로 자위하고 있다.

아홉째, 교내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에 대하여 교내 시설이나 공간의 부족, 그리고 프로그램이 없음으로서 불만족을 느끼는 교원들이 58.7%이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교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여가시설 활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열째, 교직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되리라는 희망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다 기대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보이고 있다.

열 한째, 동료교사와의 유대 강화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쪽으로 62.6% 이상을 응답하여 인간관계유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직장 내 또는 이웃 사회에서 사람을 사귀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지역은 좁은 곳이라서 이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주도 초등학교교원의 여가는 문화시설 빈약에서 오는 다양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동료교사와의 유대가 잘 이루어져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래 들어서 교원의 사기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감이 있는데 이는 교육을

경제 논리 쪽으로 보는데 있지 않나 본다. 미래의 주인을 바르게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직이 안정되고 사회로부터 우대 받는 정책이 절대적이라 본다



〈참고문헌〉

- 권이중(1991), 「사회교육 개론」, 서울: 교육출판사.
- 김광득(1990), 「현대 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 _____ (1998),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 김항원 외(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자주정신」, 제주대학교출판부.
- 서태양·차석빈(1996), 「여가론」, 대왕사.
- 조용하(1996), 「사회교육과 여가」, 서울, 교육과학사.
- 秦敎動(1982), 「철학적 인간학 연구(I)」, 서울. 경문사.
- 강나미·김은실(1988), “도시주부의 여가시간 활용에 관한 연구” 「살림본 제3집
서울여자대학교.
- 김오중(1984), “한국 레크레이션의 당면과제와 전망” 여가 및 레크레이션 학술대
회, 제1회.
- 임번장(1992), 「직장체육활동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논
문집.
-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한국산업경제연
구원.
- 김행규(1998), “초등학교 교원의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
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무철(1991), “여가활동 참여가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
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세복(1999), “대도시 교원의 여가형태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윤이중(1996),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가가 인지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난숙(2000), “초등학교 교사의 여가활동과 만족도에 관한 조사 분석” 계명대학

- 교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윤(1994), “중등교원의 여가활동과 근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길(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후원(1993), “여가활동 참여유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방신(1984), “서울시 주부의 여가생활 내용”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영희(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주도교육청(2001), 「제주교육통계연보」, 제주도교육청.
- 한국소비자보호원(2002),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가이용 실태 조사”,
http://www.cpb.or.kr/textdata/homepage/200201/1100007/rp_2002011.html
 html02-01-11.
- Brightbill, C. K. (1963), *The Challenge of Leisu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rawford, D. W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Science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 Du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 Y: The Free Press.
- _____ (1974),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Elsevier.
- Iris, B. & Barrett, G. V. (1972), *Some Relations Between Job and Life Satisfaction and Job Import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 Iso-Ahola, S. E.(1980), *The Social Psychological of leisure and recreation*. Iowa: Wm. C. Brown Co.
- Jackson, E. (1983), *Activity-specific bar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Leisure Science.

- Kraus, R. (1971),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N. Y. Apleton-Century-Crofts.
- Mancini, J. A. & Orthner, D. K. (1980), *Situational influence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morale in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 Merriam Webster(1993), *Merriam-Webster*, Massachusetts: merriam-webster Incooperated.
- Murphy, J. F.(1975), *Recreation and Leisure Service*, Iowa: William C. Brown.
- Neulinger, J. (1981), *An Introduction to Leisure*, Boston: Allyn & Bacon.
- Palmore, E. B. (1968), *The Effects of aging on Activities and Attitudes*, Gerontologist.
- Parker, S. R. (1971),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 MacGibbon and Kee.
- Riddick, C. C. (1986a), "Life satisfaction determents of older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Leisure Science.
- _____ (1986b), "Leisure Satisfaction Precurs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Romsa, G. & Hoffman, W.(1980), "An application of nonparticipation data in recreation research : Testing the opportunity theor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 White, T. H. (1975), "The Relativ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Income as Predictors in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No.3.

(부록)

설문지

濟州道 初等學校 敎員의 餘暇實態와 生活滿足度 분석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학교 업무로 무척 수고하시는데, 이 귀중한 시간을 '설문을 조사하는데 할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설문지는 선생님들이 현재의 사회환경에서 부여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가란 의무적 복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휴식, 기분전환, 자기발전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쪽에 있는 각 문항에 대하여 선생님의 평소의 소견을 솔직하게 나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립니다.

2002. 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김윤하 올림
연락처 e-mail : kyh9664@hanmail.net
제주서초등학교 711-2533(구440)
집 : 746-1765. 011-9664-1765

(응답요령)

1. 다음 설문지를 읽고 평소 선생님께서 느끼신 정도에 해당되는 것 하나만 골라 “V” 표 해 주십시오.
2. 제시된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것이 없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타 난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I. 여가활동 유형

1. 평일의 주요 여가활동 시간은 언제입니까?

- ()① 출근 전 ()② 근무 전 ()③ 중식 전 후
()④ 근무 후 ()⑤ 퇴근 후 ()⑥ 기타()

2. 평일의 학교에서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미만 ()③ 2-3시간 미만
()④ 3-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⑥ 기타()

3. 토·일요일의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시간 미만 ()② 2-4시간 미만 ()③ 4-6시간 미만
()④ 6-8시간 미만 ()⑤ 8시간 이상 ()⑥ 기타()

※아래의 물음은 보기에서 골라 하나만 ()안에 지정 번호를 써 주십시오

(보 기)

- ① 스포츠 활동 ② 관람 (영화, 연극, 전시회, 스포츠 등)
③ 여행(국내, 국외) ④ 야외활동(소풍, 등산, 야유회, 낚시, 드라이브, 농장)
⑤ 쇼핑 ⑥ 독서, 사색, 수집, 연구, 탐방 등 LIBRARY
⑦ 사교(모임, 방문, 집회, 토론, 행사 등) ⑧ 휴식, 수면, 목욕 등
⑨ TV, 신문, 잡지 등 보기 ⑩ 놀이(바둑, 카드, 고스톱, 컴퓨터오락 등)
⑪ 종교 및 사회 봉사활동 ⑫ 집안 손질, 가사, 정원 손질
⑬ 창작활동(미술, 음악, 공작, 수예, 회화) ⑭ 가족과의 대화시간
⑮ 각종 연수(컴퓨터, 외국어 등) ⑯ 외식 ⑰ 기타()

4. 학기 중, 평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5. 학기 중, 토·일요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

6. 지난 여름방학에 주로 하신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7. 지난 겨울방학에 주로 하신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8. 여건이 된다면 다가올 여름방학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9. 여건이 된다면 다가올 겨울방학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10. 학교 내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II.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11. 교내에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① 매우 다양하다. ()② 다양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12. 교내에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참가하겠다.
 ()③ 생각해 보겠다. ()④ 참가하지 않겠다.
1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내에서의 여가시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은지 **순서대로 3가지만** 써 주시겠습니까?(예 : 휴게실, 운동시설, 샤워실, 정보자료실, 음악감상실 등 구체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III. 여가의 제반사항

14. 귀하께서는 여가활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 ()② 스트레스해소와 기분전환을 위해
 ()③ 자아실현을 위해 ()④ 직무와 관련된 일의 능률 향상
 ()⑤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⑥ 기타(써 주십시오) : _____
15. 한달 평균 소요되는 여가활동 비용은 얼마입니까?
 ()① 5만원 미만 ()② 5~10만원 미만 ()③ 10~15만원 미만

()④ 15~20만원 미만 ()⑤ 20~25만원 미만 ()⑥ 25만원 이상

16. 귀하께서는 교내에서 어떤 여가시설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① 교무실 ()② 교실 ()③ 휴게실

()④ 연구실 ()⑤ 운동시설 ()⑥ 기타()

17. 교내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하다 ()② 만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하다 ()⑤ 매우 불만족하다

18. 학교관리자(행정가)의 여가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아주 낮다

19. 여가활동의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① 시간 부족 ()② 경제적 이유 ()③ 장소 및 시설 부족

()④ 건강상의 이유 ()⑤ 흥미 부족 ()⑥ 기타()

20. 바람직한 여가선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① 여가시설 및 공간 확충 ()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 행정관리자의 이해 ()④ 자유로운 출·퇴근

()⑤ 수업외 잡무 경감 ()⑥ 주당 총 수업 시간 감축

()⑦ 기타()

IV. 생활 만족도

설문 내용	아주 만족	만족	보통	불 만족	아주 불만
21. 귀하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한 행정관리자의 인정 도는?	①	②	③	④	⑤
22.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는?	①	②	③	④	⑤
23. 귀하에 대한 지역사회인의 지명도는?(귀하의 의견 제시, 의사결정에 대한 수용 또는 인정)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봉급은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승진 포함)의 성취 정도에 대하여는?	①	②	③	④	⑤

설문 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26.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관리자는 교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교에서는 가능한 교사 개인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적당히 대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학교의 제반시설은 나의 교수(업무)활동에 편 리하게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연수를 많이 하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학교는 교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공정하고 합 리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교사→교감(교장)으로 승진되리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저 그렇 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34. 나는 교직원의 복지에 대하여 학교당국과 자유롭게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의 주당 수업시간(관리자는 업무)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36. 학생들의 학습 열의도와 학업성취 수준은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7. 지역사회는 교원을 위한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내가 먼저 동료교사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유대를 강화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현재 매우 좋은 생활조건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일반 사항

40. 학교소재지 :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③ 남제주군, ()④ 북제주군 ()⑤ 중앙도서관
41. 성별 : ()① 남, ()② 여
42. 연령별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43. 결혼여부 : ()① 기혼, ()② 미혼
44. 최종학력 : ()① 사범 또는 교육대학2년 졸업, ()② 학사,
()③ 석사 이상
45. 가족 전체의 한달 평균 소득 : ()① 250만원 미만, ()② 250~349만원,
()③ 350~449만원, ()④ 450만원 이상

-- 감사 합니다 --

(Abstract)

Analysis of Leisure Activities and Satisfaction on Jeju Elementary School Teachers

Kim Yun-Ha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of basal information for increasing of their life quality by survey, analysis about leisure activities and satisfaction of Jeju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questionnaire.

The survey were carried out about sex, age, scholarship, marriage, average income per month of 385 persons in teachers, head-teachers and school-masters.

Also, the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by χ^2 verification.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time of leisure activities of Jeju elementary school teachers was afterwork on weekdays and take rest below one hour, as expected, they wish to spend leisure time, as reading, inquire visiting. and creative writing activities in the school. also, they usually were spent leisure time passively by the lack of time and economical shortage, as like as skilled workers or simple-minded workers.

2. The leisure time in weekend was below 2~4 hours in all of teachers, and that for unmarried persons were a few more hours than that of married one, so they used to spend their leisure times in the outdoor, because they expect to enjoy of their spare time in free themselves from routine time.

3. And they should join in training activities of computerization,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vacation, as well as they used to enjoy the outdoor activities with their family in exercise, hiking, picnicking, fishing, driving, family

size farming and traveling and so on. traveling abroad would be the cultural experience in the meaning of opportunity for the life of themselves.

4. The teachers in 20 to 30 ages wanted to be reduced in miscellaneous business except instruction, while the others in 50 ages wanted to be expanded in the leisure facilities. in addition, they also wanted to be established gradually for the facilities which should be able to use simply with low-cost and short-time in first, and they wanted to get administration support for using of social facilities and to be improved as free attending and leaving their office for optimum environment of community from rigidity working time.

5. The level of accomplishment from their expectation in all their life was interested in the achievement of teaching profession from ability, skill and control exhibition, and the teachers was comforted themselves to have the mind of self-admiration servicing in speciality as women's occupation in our community, discretion on duty of themselves and development of skillful and ability.

6. Above 58.7 percentage of teacher's numbers was showed in dissatisfaction, because of the lack of space and facilities and without program in the school. and community should provide the support of leisure facilities to the teachers in priority.

7. About prospection to be promoted to high rank in teaching profession, men was higher than women, and higher in high educational qualification than others.

8. In relationship between colleagues, 62.6 percentage of the answer in questionnaire were affirmative, very affirmative. furthermore, the people would be met again soon or later, because Jeju province is narrow community.

As the result of above, Jeju elementary school teacher's leisure was lack of variety for cultural facilities, but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which Jeju is island made good colleagues relationship of teachers and were living with the mind of self admiration. on the other hand, the teacher's morale looks like

getting a fall in every day, because the people would be considered education as economical logic. in order to train in right for our future-host.

Educational profession must be stable and privileged policy for teachers must be also provided by society.

